

석담 이윤우의 한강학과 기반 조성

장 인 진*

- I. 머리글
- II. 한강 정구 추승 사업
- III. 한강학과 기반 조성
 - 1. 한강의 예서 간행
 - 2. 사빈서재 식기안
 - 3. 봉산유행록
 - 4. 사빈호상록
- IV. 마무리 글

국문초록

본고는 石潭 李潤雨(1569~1634)가 그 스승 寒岡 鄭述(1543~1620)의 학문적 토대가 되는 ‘寒岡學派’의 기반 조성에 대하여 고찰한 논문이다.

이윤우는 21세 때 한강 정구에게 학문하는 방법을 배운 후로 스승을 평생 존경하였다. 스승 사후에 이윤우는 정구에 대하여 贈職·贈諡의 계청, 신도비명 청탁, 천곡서원과 회연서원의 제향 노력 등 주목할 만한 추승 사업을 실현하였고, 또 스승의 언행록 편찬, 遺文 정리 등 제자로서 책무를 다하였다.

한강학과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이윤우가 담양부사 재임 당시 스승의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자문위원 / injin0222@daum.net

저술 『오선생예설』과 『오복연혁도』를 간행한 것은, 평소 한강 정구의 간곡한 소망에 따른 실천이었다. 예학을 중시했던 조선 시대에서 이 책은 남인·노론·소론 모두가 주목하여 내용을 인용하거나 책을 重刊하였으니, 이윤우가 스승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강학과 기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빈서재식기안』은 이윤우가 주도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1617.2.16.부터 스승을 모시고 강학하여 7.20.까지 유지되었는데, 강학 문인은 85명이고, 서재에 머물며 아침저녁으로 식사할 때는 날짜별로 서명을 하였다. 서재의 문인들이 봉산[동래]에 목욕 행차를 계획하여 그해 7월 20일 실행하였고, 85명 중 44명이 동참하거나 환송하였다.

「봉산욕행록」은 이윤우가 지은 것으로, 1617.7.20.~ 9.5.까지의 일기이다. 현재 알려진 책으로는 『석담집』(목판본)에 실린 「봉산욕행록」, 1912년 정재기가 간행한 『한강선생봉산욕행록』(檜淵本), 광산이씨가 1908년에 간행한 「한강선생봉산욕행시일기」(光山李氏本) 등 3종인데, 이번에 새로 『석담집』 定稿本을 발견하였다. 정고본 중심으로 비교해 보니, 「봉산욕행록」은 3종 모두 『석담집』의 내용을 저본 삼아서 편성하였다. 『석담집』 목판본은 정고본에서 29.7%를 刪削한 것이었다.

회연본은 내용이 풍부한 편이었다. 『석담집』 정고본과 비교해 보니, 내용의 추가와 삭감이 많았다. 추가된 내용은 시문, 인명, 후대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 등인데, 대부분 『석담집』 初稿本에 기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단하였다. 그리고 광산이씨본에서는 인명의 增損과 일부 오탈자가 있었다.

「사빈호상록」은 『석담집』에 실려 있는데 1620년 1월 5일 한강 정구가 별세하자 제자 이윤우가 護喪을 맡아서 상례를 처리한 것으로, 소상 때까지의 일기이다. 현재 널리 전하는 『석담집』(목판본)을 이번에 발견된 『석담집』(정고본)과 비교하니, 내용 23.7%가 刪削된 것이었다. 기록된 인명은 115명이었고, 단체 인원까지 포함하면 166명(중복 포함)이며, 전체 문상객의 인원수는 1,626명으로 확인되었다.

이윤우는 어떤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였다. 「봉

산욕행록」에 통도사 동화록 16명, 포석정 회고록 43명, 이수 동화록 44명, 식송정 회록 31명, 경산 迫來者 명록 47명 등 181명 외에 「사빈호상록」 115명, 『사빈서재식기안』 85명 등 포함 총 381명(중복자 포함)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명록은 한강학파의 기반[토대] 자료가 될 것이며, 한강학단의 결속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정구, 정고본, 석담집, 봉산욕행록, 사빈서재식기안, 사빈호상록, 오선생예설, 오복연혁도, 정재기.

I. 머리글

조선 시대 예학과 심학의 종장으로 평가되는 鄭述(1543~1620)는 자를 道可, 호를 寒岡이라 하였다. 그의 학문 세계는 외증조부 寒暄堂 金宏弼의 학문을 기반으로 하여 퇴계 李滉과 남명 曹植의 학문을 계승하였으나, 退溪의 학통을 우위로 삼았다. 한강은 영남의 성주지역을 포함한 대구 인근 즉 洛中 지역을 중심으로 예학, 심학 등을 형성하여 전국으로 확산시켰고, 근기 지역에서는 미수 許穆을 통하여 성호 李瀾, 다산 丁若鏞으로 계승되는 실학을 발전시켰다.

한강은 1558년 성주에 창건된 迎鳳書院을 1568년에 川谷書院으로 改號¹⁾하여 程頤와 朱熹를 主享으로 하고 한훤당 金宏弼을 배향하였으며,²⁾ 1602년 서원을 증건할 때 노력하였다. 또 한훤당을 主享하는 道東書院을 重建할 때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그가 퇴계와 남명을 동시에 계승한 영남의 맹주라는 의식의 표현이었고, 도동서원을 통하여 한강 학문의 지역적 거점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기도 했다.³⁾ 천곡서원·도동서원으로 이어지는 한강의 행보와 영향력은 두 서원에서 寒岡을 從祀하고 있다는 점에서⁴⁾ 의미가 있다.

한강은 심성 공부에 주력한 유학자였지만 책을 좋아하고 저술과 편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많은 저술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 1604년 武屹精舍 棲雲庵에서 책을 수장한 이후 蘆谷精舍로 移居하면서도 책 수집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1614년 노곡정사의 화재로 저술한 많은 서적이 잿더미가 되었고 몇몇 책만 화를 면했다고 한다. 李佑成 교수는 『한강선생문집』 해제에서 한강의 저술을 34종

-
- 1) 이 서원의 이름은 程頤의 호 伊川, 朱熹의 호 雲谷에서 한 자를 취하여 川谷書院이라 하였다.
 - 2) 정병호 역, 『국역 영봉지』, 성주문화원, 2014, 10쪽.
 - 3) 김기주, 「道東書院과 寒岡學의 전개」, 『한국학논집』 5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4, 7~33쪽.
 - 4) 寒岡 鄭述는 1623년(인조 1) 천곡서원에 從祀되었고, 1678년(숙종 4) 도동서원에 從祀되었다.

으로 파악하였다.⁵⁾ 필자가 조사한 현존 필사본·간행본 5종⁶⁾까지 합하면 총 39종이다. 그 가운데 『五先生禮說』, 『五服沿革圖』, 『心經發揮』, 『太極問辨』⁷⁾, 『禮記喪禮分類』 등의 저술로 인하여 후대에서 禮學·心學의 宗匠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강이 생전에 간행했던 책을 살펴보면 1574년 간행한 薛瑄(明)의 『薛文清公讀書錄』, 1575년 간행한 『朱子書節要』 등 2종을 성주 川谷書院에서 판각하였다.⁸⁾ 1607년에는 설선의 『讀書錄』에 續選 11장을 더 붙이고 내용을 교정한 『薛文清公讀書錄要語』를 安東府에서 판각·간행하였다. 한강은 설선의 독서기록을 매우 중시하여 두 차례나 간행한 것이다. 이에 <讀書帖>을 저술하였다.⁹⁾

근대 학계에서는 寒岡學이라는 용어를 설정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寒岡學이라는 학문적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다지 멀지 않다. 정우락 교수는 한강학이 江岸學으로서의 회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강안학은 16세기 이후 낙동강 중류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학 사상을 뜻한다. 그리고 그는 한강학단이 바로 강안학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退溪와 南冥 이후 전개된 한강학이 江岸地域을 중심으로 영남지방에서 강력한 구심체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았다.¹⁰⁾ 또 홍원식 교수는 여헌 張顯光이 『寒岡先生行狀』에서 한강학을 ‘明體適用’이라고 규정

5) 분야별로 성리학 7종, 예학 4종, 역사·전기 10종, 지지·지방지 8종, 의학 2종, 문학 3종 등이다.

6) 필자가 조사한 현존 필사본과 간행본을 보면, 鄭述 編, 『西原世稿』(목판본, 1607), 鄭述 編, 『太極問辨』(목판본, 회연서원, 1667), 鄭述 編, 『退溪先生禮說問答』(필사본,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 鄭述 編, 『夏山勸懲案』(필사본), 鄭述 編, 『玄武發書正宗』(필사본, 1607년 鄭述 序文, 동국대 중앙도서관 소장) 등 5종으로 확인된다.

7) 『太極問辨』은 鄭述가 李彥迪·曹漢輔의 태극에 대한 言說에 이 논란의 출발점이 된 周敦頤의 「太極圖說」과 朱熹의 「太極解義」를 신고, 여기에 朱熹와 陸九淵의 태극 논쟁을 더하여 찬집한 것이다.

8) 천곡서원 간행 2종은 星州의 개인 소장으로, 경상북도유형문화재 534호(2019.03.25.)로 지정되었다.

9) <讀書帖>에는 薛瑄의 『薛文清公讀書錄』에서 3곳의 글이 인용되어 있다.

10) 정우락, 「한강 鄭述의 事物認識方法과 世界志向」, 『한강학의 성리학적 재발견』,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역락, 2018, 33쪽.

한 것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寒岡의 性理學이 명체의 학이라면, 그의 禮學과 經世學은 적용의 학인데, 전자는 계승적 측면이 강하다면 후자는 한강학이 일궈낸 영역이다.¹¹⁾라고 하였다. 여기서 한강의 예학과 경세학을 주목하고 있다.

한강의 학문에 대한 관심은 1985년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에서 종합적인 학술 발표를 개최한 것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¹²⁾ 그리고 2012년에는 한강학회를 설립하여 매년 寒岡學과 관련한 학술발표대회가 있었다.¹³⁾

한강의 문인은 『檜淵及門諸賢錄』(석판본)에 342명이 수록된 것을 비롯하여 최근 한강학연구원에서 확인한 문인이 총 405명이나 되니, 한강학단으로 명명할 만하다. 수많은 문인의 개별 업적은 앞으로 계속 연구가 될 것이지만, 필자는 특히 한강학과의 기반을 조성한 문인으로 李潤雨를 주목하였다.

이윤우의 字는 茂伯, 호는 石潭인데 1569년에 태어나 21세가 되던 1589년에 한강 정구 선생을 사사하여, 학문하는 방법을 배웠고, 1606년(선조 39)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정국이 매우 혼란한 시기에 출사하여 정인홍을 탄핵한 사건으로 함경도 輸城道 察訪, 鏡城府 判官 등으로 좌천되었다가 인조반정 후 禮曹正郎 知製教, 正言, 修撰 등 청요직을 역임하고 담양부사로 나가서 선정을 베풀었다. 1631년 공조참의를 역임한 후 1634년에 졸하니 조정에서 이조참판을 증직하였다.¹⁴⁾

11) 홍원식, 「조선전기 낙중학과 정구의 한강학」, 『한국학논집』 48,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2, 16쪽.

12)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한국의 철학』 13, 1985.에서 주제별 발표를 보면, 金光淳은 「寒岡의 生涯와 文學」을 문집을 통하여 고찰하였고, 崔丞灝는 「寒岡의 持敬論」을 철학적으로 구명하였으며, 權延雄은 「『檜淵及門諸賢錄』小考」를 역사적으로 설정하였고, 丁淳睦은 「寒岡 鄭述의 敎學 思想」을 전집·인행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徐首生은 「寒岡 鄭述의 禮學」을 『五先生禮說分類』를 기반으로 조명하였고, 琴鍾友는 「寒岡의 政治思想에 관한 研究」를 『心經發揮』 등을 중심으로 구명하였다.

13) 2012년부터 10년간 한강학과 연구를 비롯하여 생애, 교육, 문학, 철학, 예학, 역사, 문인 등의 분야와 남한학 수용, 기호지역 확산 등 다양한 주제로 2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윤우는 스승 정구의 저술인 禮書를 간행하였고, 또 정구를 중심으로 기록한 「蓬山浴行錄」과 「泗濱護喪錄」을 저술하였다.¹⁵⁾ 이러한 자료는 한강학파의 기반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봉산욕행록」은 성주 회연서당에서도 간행한 바 있는데 근래 학자들이 주목하여 발표한 적이 있다.¹⁶⁾ 이번에 「봉산욕행록」의 定稿本을 새로 발견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본을 비교해 볼 것이다. 이 외에도 관련 문서를 검토하는 등 한강학파의 기반 조성에 대해 구명해 보기로 한다.

II. 한강 정구 추승 사업

석담은 인조반정 직후 임금을 알현하여 朝講을 하는 자리에서 한강 정구에 대해 벼슬을 추증해 줄 것[贈職]과 시호를 내려 줄 것[贈諡]을 계청하였는데, 당시 언행 몇 편을 살펴본다.

- ① 수찬 이윤우가 아뢰기를, ‘정구는 조행과 학식이 남방 사림의 영수이니 특별히 시호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인조]이 ‘해조[예조]에 명하여 시행토록 하라’ 하였다.¹⁷⁾

-
- 14) 석담의 행적에 대해서는 장인진, 『4대한립 한강학의 기반, 칠곡 석담 이윤우 종가』, 경북대학교출판부, 2020, 39~60쪽. 및 장인진, 「석담 이윤우와 한강학 기반 조성」, 『한강학과 석담 이윤우』(2022년도 한강학연구원 창립10주년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한강학연구원, 2022, 51~60쪽. 참조.
- 15) 李潤雨, 『石潭集』(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은 목판본인데, 권4에 「蓬山浴行錄」과 「泗濱護喪錄」이 등재되어 있으나 내용이 소략하다.
- 16) 한영미, 「『蓬山浴行錄』 研究」,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정우락, 『한강학의 생성공간과 한강학파의 성장』, 한강학연구원, 2022, 467~511쪽. ; 김학수, 「〈봉산욕행록〉을 통해 본 한강학파의 인적 기반」, 『봉산욕행록』(이세동 역), 성주문화원, 2016, 93~130쪽. ; 김학수, 「한강 정구와 봉산욕행」, 『한강학과 석담 이윤우』(2022년도 한강학연구원 창립10주년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한강학연구원, 2022, 13~45쪽. ; 정우락, 「〈봉산욕행록〉에 대한 문화론적 독해」, 『봉산욕행록』(이세동 역), 성주문화원, 2016, 131~167쪽.
- 17) 『인조실록』, 인조 1년 윤10월 14일 경자 조.

- ② 문인 이윤우가 登對하여 시호를 청하자, 마침내 文穆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¹⁸⁾
- ③ [이윤우]가 경연의 자리에서는 “정구는 곧 신의 스승입니다. 학문상의 공부로 보면 옛사람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데, 무신년[1608]에 소장을 올려 인륜을 붙잡아 세우려 하다가 불행히도 죽어 오늘날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림이 모두 崇秩[1품직]에 추증되기를 기대했는데, 참관이었다고 하여 이번에 단지 관서로만 추증하였으므로 섭섭하게 여기는 듯싶습니다.¹⁹⁾

석담은 문신으로 있으면서 한강 정구의 명예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 제자임을 실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1625년 9월에 임금이 이조정랑 金時讓을 보내어 文穆이라는 시호를 내렸다.²⁰⁾

1625년에는 석담이 한강 문인을 대표하여 상촌 申欽에게 「寒岡先生 神道碑銘」을 요청하여 실현을 보았다.²¹⁾

석담 이윤우는 한강 정구의 서원 제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檜淵書院의 경우, 「한강연보」에는 1622년(광해 14) 겨울에 ‘星州의 士類가 회연에 서원을 세웠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성주의 사류가 세웠다.’라고 되어있으나, 「석담실기」에는 (석담이) 1622년에 ‘회연서원을 건립했다.’라 하였다. 석담의 실기에 기록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회연서원 건립은 석담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다.

川谷書院의 경우는 1623년(인조 원년) 가을에 성주 고을의 사림이 한강 정구를 친곡서원에 배향해 주도록 경상감사[閔聖徽]에게 글을 올렸는데, 당시 청원의 주체는 성주 사림이지만, 경상감사에게 올린 글은 석

18) 『광해군일기』[중초본], 광해 12년 1월 5일 갑신 조.

19) 『인조실록』, 인조 2년 10월 13일 갑오 조.

20) 鄭述, 『寒岡集』(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한강연보」의 1625년 9월의 기록이다. 그런데 『인조실록』에는 1625년 6월 2일(戊寅)에 ‘정구에게 文穆이란 시호를 내렸다.’라고 하였다.

21)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학수, 「한강 정구의 신도비명의 개정 논의와 그 의미」, 『한강 정구와 회연서원 문화』, 한강학연구원, 2019, 135~208쪽.”에 신도 비명 요청에서 개정까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담 이윤우가 사림을 대신하여 지은 것이다. ‘方伯에게 올린 글’[明文]의 한 대목을 본다.

本州에 川谷書院이 있는데, 伊川·雲谷 두 선생을 받들어 배향하고 있고 文敬公 金某를 배향하였습니다. 鄭某는 문경공에게 있어 실로 외손이 되는데, 그 학문의 연원이 분명한 단서가 있으니 아울러 제향을 드리는 것이 일의 이치가 진실로 합당할 것입니다.²²⁾

문을 올린 그해 10월 경상감사 민성휘가 이 같은 사실을 조정에 계문하여 마침내 한강선생을 從祀하게 되었다. 한강의 천곡서원 종사는 석담 이윤우가 방백에게 올린 글을 지었다는 점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이 분명하다.

「한강언행록」에 대하여 살펴본다. 「석담실기」 1621년 2월 조에 「鄭先生言行錄」을 지었다고 했다.²³⁾ 그러나 석담이 지은 한강선생 언행록은 현재 전하지 않아서 어떤 규모인지 알 수 없다. 현재 전하는 「한강언행록」은 편자 미상인데, 『한강집』에 실려 있다.²⁴⁾ 이 책에서는 석담의 글 9편이 成德, 禮學, 敎人, 辭受, 忠義, 著述, 考終記 등의 편에 나누어져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1617년 온천에 도착하여 「오복연혁도」와 「이선생예의답문」의 제목을 쓴 일, 봉산 옥행 길에 吳健의 기일을 당하자 선생이 소반을 먹고 술상을 거절한 일, 동래부사의 과도한 정성을 사양하며 관아의 제공 물자를 거절한 일 등이 있다. 「봉산옥행록」의 내용과 겹친다. 또 1613년 계축옥사가 일어나자 선생이 2통의 차자를 올려서 부당함을 청한 일을 두고, 온 나라 신료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던 때에 선생은 순수하고 바른 학문과 정밀하고 깊은 조예와 정당한 논의와 분명한 거취를 보였으니, 五賢 이후 첫째가는 사람이라 하였다. 「

22) 李潤雨, 앞의 『石潭集』, 권3, 「呈方伯文(寒岡先生川谷書院從祀時 代星州士林作)」
“本州有川谷書院, 奉享伊川雲谷兩先生, 而以文敬公金某從祀, 蓋鄭某於文敬公, 實爲外孫, 其學問淵源, 的有端緒, 並享茲芬, 事理允合.”

23) 앞의 책, 「實記」, “天啓元年辛酉二月, 撰鄭先生言行錄.”

24) 정구, 『한강집』(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한강언행록」 전체 4권.

한강언행록」에 실려 있는 석담의 글 몇 편을 더 본다.

- ① 나이가 겨우 약관이 되었을 때 문순공 이선생(이황)을 찾아가 배움으로써 견문이 날이 갈수록 더욱 고명하고 충실해졌다. … 온종일 무릎을 꿇고 앉아 항상 긴장을 유지함으로써 태만하고 바르지 않은 기운이 한 번도 신체상에 가해진 적이 없었으며, 올바르게 읽은 글, 예가 아닌 모습과 향간의 비속한 말을 한 번도 이목에 접한 적이 없었다.[권1, 成德 편]
- ② 眞西山(眞德秀)의 『心經』 1부는 실로 우리 유학에 있어서 거칠게 흐르는 강물을 막는 砥柱山이자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指南車인데, 그 補註가 완전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었다. 이 때문에 선생은 마침내 先儒들의 간단한 말이나 구절 가운데 『심경』 37장의 뜻을 드러낼 만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널리 수집하였으니, 후학에게 끼친 공 또한 크다 하겠다.[권3, 著述 편]
- ③ 선생이 이르기를, “학문을 하는 데에 있어 급선무는 『소학』에 힘을 쏟는 것이니, 그런 뒤에야 『四書』, 『심경』, 『근사록』, 『주자대전』 등의 글을 차례로 이해할 수 있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옛사람의 글을 읽을 때에는 정밀히 탐구하고 힘껏 실천하여 덕성을 함양하고 진일보함으로써 근본을 두텁게 해야 한다.” 하였다.[권1, 敎人 편]

인용문의 ①은 퇴계 이황의 師承을 들면서 한강선생의 학문적 자세와 몸가짐이 특출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②는 선생이 편성한 『心經』이 세심한 정성을 들여서 완성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③은 선생이 제자 석담에게 공부하는 차례, 올바른 독서법, 덕성 함양 등에 대해 훈계하고 있다.

석담은 1620년 한강선생 장례 이후 泗上에 이르러 동문 제우들과 遺稿를 수집하는 등의 일을 요리하였다.²⁵⁾ 그 후 10여 년이 흘러도 한강선생 문집에 관심을 가졌으므로 「석담연보」의 1631년(63세) 조에 ‘鄭先生文集’을 攷正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강선생문집』은 석담 사후 2년

25) 李潤雨, 앞의 『石潭集』, 「實記」, “萬曆四十八年庚申四月, … 還到泗上, 與同門諸友, 料理收輯遺稿等事.”

이 되던 1636년에 간행되었다. 석담이 생전에 수집하여 교정한 初稿가 있었을 것인데, 간행 당시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알 수 없다.

Ⅲ. 한강학파 기반 조성

1. 한강의 예서 간행

석담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石潭先祖師友帖』에 수록된 글 가운데 한강선생이 석담에게 보낸 簡札을 보면 1장으로 되어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총 4편이다. 그 가운데 2편은 답신인데 이 글은 『한강선생문집』에도 실려 있다. 4편의 간찰 가운데 한강의 답신 1편과 보낸 편지 1편을 본다.

한강이 답신을 보내게 된 연유는 이렇다. 석담 이윤우가 1614년경 경성도호부 관관으로 있을 때 석담 자신이 풍토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근황, 선생의 건강을 염려함, 낙재 徐思遠이 질병으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소문 듣고 슬퍼함, 「禮說」이 완성되지 못한 데 대한 송구함 등의 내용을 편지로 써서 선생께 올렸는데,²⁶⁾ 그에 대한 선생의 답신이다. 이에 한강 선생은 석담에게, 병세는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는 근황, 낙재 서사원이 돌아간 사실[1615년 초여름], 중병으로 인해 「禮說」의 초고가 진전 없이 그대로 있어서 끝내 완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등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²⁷⁾

한강이 보낸 편지 1편은 1615년에 쓴 것인데 아들[鄭樟]이 죽고 나서 1년이 된 시점이라 착잡한 심정과 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근황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26) 앞의 책, 권2, 「上寒岡先生」.

27) 鄭述, 앞의 『寒岡集』, 권4, <李茂伯에게 답함>.

「禮說[五先生禮說]」은 아직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곳에 와서 함께 정리해 줄 사람이 없어 다른 초고들 속에 뒤섞여 방치되고 있으니, 이 책이 어찌면 반드시 우리 茂伯[이운우]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비로소 완성을 보게 될지 어찌 알겠는가. 「歷代紀年」과 「經世紀年」 두 책도 지금 다시 다듬고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궁벽한 마을에 혼자 누워 답답한 심정으로 한탄만 할 따름이네.²⁸⁾

「예설」의 초고가 진전 없이 방치되고 있어서 후일 제자인 석담에게 완성을 기대해보는 심경의 토로와 함께 「역대기년」, 「경세기년」 두 책도 지금 다듬고는 있지만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한탄만 하고 있다는 등의 답답한 심회를 적었다.

이러한 스승의 편지를 일찍부터 받은 석담은 선생의 간절한 소망을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그가 潭陽府使로 있던 1629년에 스승 한강이 지은 『五先生禮說』(1603년 저술)²⁹⁾ 20권 10책과 『五服沿革圖』(1617년 저술) 1책을 간행하였다. 『오선생예설』은 중국 송나라의 程顥, 程頤, 司馬光, 張載, 朱熹 등 다섯 유학자의 예설을 분류한 것이고, 『오복연혁도』는 상례의 다섯 가지 복제를 기록한 것이다.

석담이 두 종의 책을 간행하고자 한 데는 한강선생의 간곡한 소망에 따른 실천이었기에, 직접 발문을 썼다. 우선 『오선생예설』 발문의 중요 부분은 이러하다.

오선생예설은 바로 한강 정선생이 지은 것이다. 우리 선생의 일생동안의 정력이 여기에 다 깃들었다. 선생이 돌아가시는 날에 이르러서는 임종에도 또한 제자의 손을 잡고 간절히 이야기한 것이 모두 이 일이었다. 선생은 예에 있어서 부지런하고 지극하였다. 선생이 처음 이 예서를 모을 때에, 민가의 예서를 보관하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비록 그 사람이 평소 알지 못한 자더라도 반드시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갔다.³⁰⁾

28) 앞의 책, 권4, <李茂伯에게 보냄>.

29) 『五先生禮說』은 석담 이운우가 담양부에서 간행할 때 서명을 『五先生禮說分類』라 하였다.

30) 李潤雨, 앞의 『石潭集』, 권3, 「五先生禮說跋」, “五先生禮說, 乃寒岡鄭先生之所撰

이 책에 대한 스승의 강건한 편집 의지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책은 본래 그를 포함한 한강 문인들이 鹿峰精舍에서 校勘한 후 研經書院에서 院儒들의 협조 아래 그와 李濯, 李道昌, 李道長 등이 교정을 끝내고 녹봉정사에 제출한 것이었다.³¹⁾ 1624년 12월 經筵에 입시할 때 이 책의 간행을 시도하였으나, 李适의 난으로 물력이 고갈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628년 담양부사가 되어 列郡의 守令으로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분담하여 出刊하게 되었다. 여헌 張顯光이 석담의 부탁으로 발문을 썼는데 “가르침은 禮敎보다 먼저 할 것이 없고, 배움은 禮學보다 간절함이 없으니, 예로부터 성인이 예를 중히 여김이 이때문이다.”³²⁾라고 하였다. 석담은 글의 말미에 “어찌 斯文의 큰 다행이 아니겠는가(豈非斯文之大幸也).” 하며 감회를 적었다.

『오복연혁도』의 발문은 이러하다.

지난 정사년[1617] 가을에 이윤우가 한강 정선생을 따라 蓬山[동래]의 온천에 갔다. 선생은 이때 風患으로 벌써 3년이 되었다. 목욕하고 나온 여가에 ‘의례오복도’를 가지고 조금씩 수정·윤색을 가하고 역대 연혁의 제도를 참고하여 潤雨에게 그것을 쓰라고 하였다. 이것이 ‘오복연혁도’이다. 필첩 20절로 만들고 35目으로 구분하여 후생과 초학자들이 이 책을 펴 보면 분명하니, 선생이 예학에 있어서는 천성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³³⁾

이 책은 상례의 다섯 가지 복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 儀式을 도표로 만들어 해설한 것인데, 『오선생예설』을 간행하고 남은 목재로 간행한 것

也, 吾先生一生精力, 盡在於此, 至於易簣之日, 纘息將冷, 而猶且執弟子手, 諄諄然若夢中語者, 皆是此事, 先生之於禮, 其亦勤且至矣, 先生始哀集此書時, 聞人家有藏禮書者, 則雖其人素不相識, 必不遠千里而求致之.”

31) 앞의 책, 『泗濱護喪錄』, ‘庚申[1620년]十二月十三日~十二月二十一日’ 참조.

32) 張顯光, 『旅軒集』(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권10, 「五先生禮說跋」, “教莫先於禮敎, 學莫切於禮學, 自昔聖人之重禮也, 其以是哉.”

33) 李潤雨, 앞의 『石潭集』, 권3, 「五服沿革圖跋」, “昔在丁巳秋, 潤雨從寒岡鄭先生, 往浴于蓬山之溫井, 先生於是時, 患風痺已三年矣. 出浴之暇, 取儀禮五服圖, 稍加修潤, 參以歷代沿革之制, 命潤雨寫之, 名之曰五服沿革圖. 爲帖凡二十, 爲目凡三十五, 使後生初學, 開卷了然, 先生之於禮學, 可謂出乎天性者矣.”

이다.

『오복연혁도』에 대해서는 1645년(인조 23) 玉堂에서 이 책이 명백한 증거가 된다며 기년복 제도를 단행하도록 劄子를 올린 바 있고, 1664년(현종 5)에는 전라감사 鄭萬和와 용담현령 洪錫이 상의하여 龍潭縣에서 이 책을 重刊하였는데 우암 宋時烈이 주목하여 발문을 썼다.³⁴⁾ 金長生의 『家禮輯覽』, 朴世采의 『家禮要解』, 柳長源의 『常變通攷』 등에서 인용하였고, 尹鏞, 尹拯, 權尙夏, 李萬敷 등이 그들 문집의 雜著나 書에서 논의하였다. 이 책은 『오선생예설』³⁵⁾과 함께 南人 학자뿐만 아니라 老少論 학자들도 매우 중시하였다. 최근 한강학연구원이 주최한 기획학술대회에서 이 책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으니,³⁶⁾ 의미 있는 일이다.

2. 사빈서재 식기안

『泗濱書齋食記案』은 1617년 한강선생으로부터 강학을 받고자 한 사람들이 泗濱書齋에서 선생을 모시고 講學하며 숙식한 것을 표기한 고문서 1점이다.³⁷⁾ 이 자료가 수년 전 고서 경매장에 나온 것이라 하였으니 그동안 어느 집안에 보존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고문서의 규격을 보면 한지에 세로 41cm × 가로 12.4cm의 크기로 묶었는데 張數

34) 宋時烈, 『宋子大全』(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권146, 「五服沿革圖跋」, “昔寒岡鄭先生取儀禮五服圖, 參以歷代之制, 名曰五服沿革圖, 使門人李承旨潤雨繕寫爲一帖, 凡三十五目也. 先生之於禮, 可謂博而勤也. 崇禎己巳春, 李承旨鉞板于秋城府, 而印布未廣, 旋復見失, 先生嘉惠後學之意, 殆乎泯滅矣. 歲甲辰冬, 監司鄭萬和, 縣令洪錫相議復入于梓, 藏置于龍潭縣舍, 因志其顛末云, 原跋如是刪潤則差勝矣. 始欲以此報於鄭, 洪二公矣. 慮未必用而止. 乙巳冬 書.”

35) 이 책에 대해서는 宋時烈, 朴世采, 李喜朝, 李光靖 등이 그들 문집의 雜著나 書에서 논의되었다.

36) 장동우의 「한강 『오복연혁도』의 예학사적 위상」, 정경주의 「『오선생예설분류』의 편차와 그 의의」 등이 한강학연구원, 제4차 한강학연구 기획학술대회(2015.11.28.)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책의 성격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37) 이 자료는 연경서원 중건 추진준비위원장 도재욱 씨가 제공한 복사물이다. 규격과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재욱, 「사빈서재의 고찰」, 『한강공원 준공 및 사양정사 복원 고유제』, 한강정구선생기념사업회, 2018.”에 기술되어 있다.

는 14張이다. 내용을 보면 한강선생의 문인 85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³⁸⁾

식기안은 일명 到記라 하는데 유생들의 식당 출입 장부이다. 도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침저녁 두 번의 식사를 1점으로 하여 개수의 많고 적음으로써 유생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였다. 고문서 앞부분에 「齋中食記規例」가 있다.³⁹⁾

『사빈서재식기안』을 보면 강학을 시작하는 1617년 2월 16일 저녁부터 이듬해 정월까지 식사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면 식사 횟수를 표기했던 개별 명단의 날짜 하단에 모두 ‘七月’이라고 종결 표시를 하였다.⁴⁰⁾ 7월은 봉산 옥행을 계획한 달이므로 강학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이고, 구체적으로 7월 20일까지 표기되어 있다. 7월 20일은 바로 제자들이 한강선생을 모시고 봉산 옥행을 떠난 날이기도 하다. 이로 보면 봉산 옥행의 계획은 사빈서재 강학 문인들이 논의하여 실행한 것이며, 특히 석담 李潤雨, 동호 李籟 등이 주도한 것이라 하겠다. 식기안을 분석해 본다.

〈표 1〉 사빈서재식기안

성명	식사기간	일수	성명	식사기간	일수	성명	식사기간	일수
李籟	1617.2.16 ~3.7	10	郭慶興	3.9~3.12 7~19~7.20	6	裴尙龍	4.12~7.10	11
李潤雨	2.16~7.6	32	李稷	3.7~4.20. 7.19	7	裴尙虎	4.12~7.6	7
李天封	2.17~4.20 7.19	7	李剛	3.9~7.17	11	李時幹	4.12~4.13	2
李壘	2.16~7.20	14	鄭天澍	3.26~7.8	15	都永修	4.13~4.15	3
李蘭貴	2.17~7.20	10	李厚慶	3.12~3.15	4	尹莘龍	4.13~4.14	2

38) 이 고문서를 통하여 한강선생이 中風에도 불구하고 문인들의 侍湯을 받으면서 강학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39) 公糧之員 各其名下 書日月朝夕 着署 / 群聚講學之員 勿問久速 勿論他官 饋之 / 雖非講學之時 願留湯侍之員 饋之 / 今來明去之員 勿饋.

40) 『사빈서재식기안』을 보면 강학한 문인 85명 가운데 83명이 7월에 종결처리 되었다.

성명	식사기간	일수	성명	식사기간	일수	성명	식사기간	일수
李心愍	2.18~2.28	4	李道孜	3.12~3.15	4	李埴	4.14~4.15	2
柳武龍	2.20~4.5	6	李道昌	3.12~3.15 7.19	5	都聖俞	4.16~4.17	2
金大澤	2.19~6.20	8	孫處訥	3.14	1	徐思選	4.16~4.17	2
李命龍	2.20~2.23	4	楊泗	3.15~3.16	2	李綸	4.16~4.19 7.19	5
崔穩	2.21~3.12	6	裴尙志	3.15~3.18	4	都大成 [都愼 與]	3.13~7.9	18
李配義	2.22~4.5 1618.1.2. 1.7	6 2	羅尙輝	3.15~7.20	7	金允成	4.19~4.20	2
郭尙	2.21~3.15	5	洪武臣	3.18~3.20	3	孫沆	5.4~5.6	3
金棗	2.16~7.20 7.21~9.6	49 19	成璨	3.18~3.20	3	孫滌	5.9~5.10	2
李文雨	2.21~3.26 7.19	7	崔恒慶	3.19~3.23	5	李宇梁	5.8~5.10	3
李新雨	2.21~3.27	7	崔嶠[嶠]	3.19~3.23	5	金善慶	5.8~5.13	6
李起雨	2.21~2.24	4	金佑賢	3.20~7.20	8	柳泳	5.8~5.10	3
李蘭美	2.23~2.24	2	李培根	3.20~7.19	9	李承先	5.8~5.9	2
李濯	2.20~7.13	31	李興雨	3.25~3.26 7.19	3	李見龍	5.9~5.10	2
宋時衍	2.24~2.25	2	張以俞	4.1~4.4	4	鄭本	4.4~5.17	5
朴宗祐	2.25~5.24	8	張慶遇	4.1~4.4	4	河淵尙	5.12~5.15	4
金軸	2.26. 7.19	2	李綜	4.3~4.7 7.19	6	呂燦	5.22~5.29	4
李心弘	2.27~2.28	2	金宗	4.4~4.6	3	金聲宇	6.17~6.19	3
李時雨	2.27~2.28	2	朴霍	4.4~4.12	9	裴尙日	7.6~7.10	5
李長立	2.29~4.10	5	朴光星	4.4~4.8	5	郭揚馨	7.18~7.20	3
蔡夢硯	2.30~3.2 7.19	4	金應先	4.7~4.9	3	李時謙	7.19	1
孫處約	3.5~3.7	3	鄭惟燾	4.7~4.9	3	裴元章		0
黃永清	3.6~3.7	2	孫宇男	4.9~5.6	13	全省三	1617.1.6.~1. 7	2
李珂	3.7~3.10	4	都汝俞	4.9~4.17	9			
李楷	3.9~3.12	4	馬成麟	4.9~7.20	9		계 85명	

<표1>의 식기안을 분석해보면 석담 이윤우는 2월 16일 저녁부터 봉산 옥행에 참가하기 직전인 7월 6일까지 32일간 식사한 후 직접 서명을 하였다.⁴¹⁾ 명단 가운데 가장 많이 식사한 사람은 金燾(1582~?)로, 총 68일인데 강학을 종료한 7월 20일까지는 49일간 식사한 셈이다. 나머지 19일은 7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로, 이것은 선생과 제자들이 봉산 옥행에 참가함에 따라 비워둔 사빈서재를 26세의 청년인 그가 홀로 지키면서 먹은 것이라 하겠다. 「봉산옥행록」을 보면 김절은 서재를 지키는 가운데서도 7월 20일에는 행차를 떠나는 선생 일행을 배웅하였고, 9월 4일에는 서재에 도착한 선생 일행을 영접하였다.

명단 가운데 李天封, 李文雨, 蔡夢硯, 郭慶興, 李棣, 李道昌, 李興雨, 李綜, 李綸, 李時籟 등 10명은 몇 달 동안 강학에 참여하지 않다가 봉산 옥행에 동참 또는 선생을 배웅하기 위해 7월 19일 또는 7월 20일에 서재에 와서 먹었다. 서재 강학이 종료되고 그 이듬해 정월에 개별로 와서 2일간 식사한 李配義·全省三은 선생의 약 시중을 들고자 출입하여 학습한 것이라고 본다. 李綸 칸에는 4월 20일로 쓴 2칸에 작은 글씨로 南文瓘(朝: 조식), 南煜(夕: 석식)이라 쓰고 각기 서명한 것이 보인다. 이들 2명은 이륜의 주선으로 와서 서재에 참관한 것이 아닌가 한다. 都大成은 3월의 13일과 14일에 각각 아침 3식, 저녁 2식을 하였고, 4월 12일에도 아침 2식, 저녁 2식을 한 것으로 되어있다. 친척이 와서 먹은 것 같다. 또 도대성의 명단 하단에는 雙行으로 된 註가 있다.⁴²⁾ 이 기록은 강학 종료 이후 이듬해 2월까지 부정기적으로 公糧을 배급한 것이므로 도대성과는 무관하다고 본다. 식기안의 끝에서 두 번째 표기된 裴元章은 그해 7월 전후로 講을 받기로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없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41) 이윤우는 사빈서재 가까이서 살았다. 7월 7일 이후 7월 20일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거의 매일 왕래했을 것이라고 본다.

42) 도대성의 명단 아래에는 雙行으로 “九月十一日 三升[3되], 十二日, 十三日 三升[3되], 九月十八日 二升[2되], 正月〇日 十八日 〇〇, 二月初六日 二升[2되]” 등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한편 식기안의 2월 16일은 문서가 작성된 후 최초로 기록된 날이다. 첫날에 기록한 사람은 李籥(1566~1651)와 李潤雨(1569~1634)이고, 그 이튿날은 李天封(1567~1634)으로 확인된다. 석담은 사빈서재에 첫날부터 참여하여 식기안에는 자신보다 3살 많은 이서에 이어 두 번째로 성명을 표기하였고, 식사도 32일간 먹어서 이서가 먹은 10일, 이천봉이 먹은 7일보다 많았다. 또 참여한 85명 가운데는 석담과 10촌 이내의 친인척이 20명이나 된다.⁴³⁾ 친인척의 사돈까지 합하면 더 늘어난다.

석담은 이처럼 첫날부터 참여하였다. 그의 행적을 고려해보면 한강선생을 위해 禮書를 간행하였고, 「사빈호상록」, 「봉산욕행록」 등을 저술하는 등 기록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사빈서재식기안』은 석담이 주도하여 기록을 남기고자 한 것이라고 본다.

3. 봉산욕행록

1) 판본 검토

「蓬山浴行錄」은 한강선생의 제자들이 선생을 모시고 蓬山[東萊]의 온천에 다녀온 1617년 7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46일간의 일기이다.

서술방식은 我, 余, 吾 등과 같은 자칭대명사가 없는 제3자적 관점에서 기록한 것인데, 이윤우의 『石潭集』에 수록하여 전하였다. 목판본 『석담집』은 서문과 발문이 없지만, 저자의 7대손 李萬運이 편성하여 19세기 전반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이 목판본이 나오기 전에 이미 初稿本과 定稿本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각 처에 소장된 고문헌을 조사하였는데, 초고본은 발견할 수 없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定稿本 1질

43) 이윤우를 포함하여 이난귀(이성8촌제), 이심민(중숙), 김태택(이성5촌숙), 김절(이성6촌제), 이문우(아우), 이신우(재종제), 이기우(3종제), 이난미(이성8촌제), 송시연(9촌질서), 박종우(이성5촌질), 이심홍(중숙), 이시우(재종제), 채몽연(이성8촌매부), 이도창(자), 손치눌(중고모부), 이흥우(재종제), 김실(이성6촌제), 도성유(재종매부), 도대성(이성7촌질) 등이다.

을 발견하여⁴⁴⁾ 복사본을 받았다.

『석담집』에 실려 있는 「봉산욕행록」은 뒷날 한강의 13대손 鄭在夔(1857~1919)가 1912년 檜淵書堂에서 간행한 『寒岡先生蓬山浴行錄』[檜淵本]의 편집의 底本이 되었다. 정씨는 이 책에 대하여 “선생이 명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행로에서 적은 것에서 나왔기에 우리 집에 소장되지 않았다.”⁴⁵⁾라고 하였다. 그가 간행한 이 책이 『석담집』을 底本 삼아서 편성한 것인지 입증하기 위하여 이번에 발견한 『석담집』 정고본[石潭 定稿本]과 회연본의 한 대목을 비교해 본다.

7월 21일 맑음 … 여러 벗 20여명이 분향 알묘했다. 조반을 드신 후 선생께서 견여를 타고 산을 올라 묘소를 배알한 뒤 배로 내려오셨다. 광영희 이명룡, 배상룡, 이시우, 성안리, 성이각, 광경홍, 이난귀, 이난미, 유무룡, 최은, 최린, 광양형, 광유한, 광유녕(정유휘, 정유약) 등이 뱃머리에서 작별하였다. 어목정과 부래정 두 정자를 지날 때 다시 역풍이 크게 불었다. 대암 앞에 이르러 침지 정진과 김수이 등 10여명이 거룻배를 타고 앞에서 다가오자 선생께서 두 노인만 오기를 허락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숙소로 와서 만나도록 하였다. 선생이 배 안에서 범도를 어긴 일로 이숙발에게 큰 잔을 들어 짐짓 별주를 마시게 하였는데 대개 이숙발을 공사원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이다.⁴⁶⁾

44) 지난해 10월에 발견한 李潤雨의 『石潭先生文集』(定稿本)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古3428-631)되어 있다. 이 책을 검토해보면 8권 5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初稿本에서 刪削하여 깨끗하게 淨書한 것임에도 다시 일부 내용에 ‘刪’ 표시의 부표가 붙어 있다.

45) 鄭在夔 編, 『寒岡先生蓬山浴行錄』, 鄭在夔 跋, “錄非先生所命, 而出於諸子之記行, 故吾家無藏焉.”

46) 李潤雨, 앞의 『石潭先生文集』(정고본), “(七月)二十一日晴. 諸友二十餘人, 焚香謁廟朝飯後, 先生以肩輿上山, 展謁墳墓後下船, 郭永禧·李明龍·裴尙龍·李時雨·成安理·成以格·郭慶興·李蘭貴·李蘭美·柳武龍·崔은·崔嶙[嶽]·郭揚馨·郭惟翰·郭惟寧·(鄭惟輝·鄭惟煥[煥])等拜辭船頭. 過漁牧浮來兩亭, 逆風復大起, 至臺巖前, 鄭愈知進·金壽怡等十餘人, 乘小艇前來, 先生只許入兩老(人), 餘人則使之來會于宿所. 先生以舟中失律, 舉白戲罰李叔發, 李叔發蓋曾以叔發定公事員故也.” 그런데 『석담집』(목판본)을 보면 이명룡, 배상룡, 이시우, 성안리, 성이각, 광경홍, 이난귀, 이난미, 유무룡, 최은, 최린, 광양형, 광유한, 광유녕 등이 누락 되어있다.

글을 보면 문체와 서술, 내용 전개 순서가 동일하다. 다만 회연본에서는 2명(정유휘·정유약)이 추가되었고, 두 노인의 ‘兩老’를 ‘兩老人’으로 명확히 했을 뿐이다.⁴⁷⁾

봉산의 육행 일기는 光山李氏가 편집한 것이 있다. 광산이씨는 한강의 처가 집안이다. 이 자료는 1908년 廣陵에서 開刊한 『光山李氏淵源錄』(목활자본) 말미에 「寒岡先生蓬山浴行時日記」라는 명칭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저자 표시가 없다.⁴⁸⁾

광산이씨본 「한강선생봉산육행시일기」를 포함한 異本의 내용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석담의 개인적 感想을 표현한 글을 본다.

8월 28일 : 이침지는 올해 나이가 78세인데 바위 언덕을 오르내리기를 평지를 걷듯이 하니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하도다.(李僉知今年七十八, 而陟降巖崖如履平地 奇哉奇哉.)

9월 1일 : (포석정에서) 유상곡수의 자취가 완연하니, 생각하건대 견훤의 군대가 도성에 압박했는데 상하 군신(君臣)이 취하고 노래하며 즐기기를 일삼고 있었으니 망하지 않으려 해도 될 수 있었겠는가!(流觴曲水遺址宛然, 想其瑩兵已迫畿甸, 而君臣上下方且酣歌遊燕是事, 求欲不亡得乎.)⁴⁹⁾

이 글은 石潭 定稿本, 檜淵本, 光山李氏本 등 3종의 異本에서 똑같이 서술된 방식이다. 이처럼 광산이씨본도 『석담집』의 내용을 底本으로 삼았음이 분명하다. 다만 일정에 따라 增損과 誤記가 있고, 소략한 기록에는 요점이 잘 정리되어 있다.⁵⁰⁾

47) 한편 鄭在夔 編, 앞의 책, 내용 註에 ‘一本○’와 같이 異本의 字를 표기한 것을 살펴보면, 대체로 『석담집』의 원 글자이다. 즉 『석담집』의 본 내용의 글자를 이본의 글자인 것처럼 註에 넣고 있다.

48) 光山李氏 編, 『光山李氏淵源錄』, 목활자본(廣陵開刊, 190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한古朝57-가883), 3권 3책 중 권3 말미의 「淵源錄記」(鄭在教 撰) 다음에 「寒岡先生蓬山浴行時日記」가 실려 있다.

49) 다만, 광산이씨본에서는 결구에 ‘不亡得乎’를 ‘不亡不可得也’로 표기하고 있는데 뜻은 같다.

50) 광산이씨본은 6,160자인데 특기할 만한 내용은 없고 七絶詩 전체가 삭제되었다. 석담 정고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부 명단에서 增損이 있고, 郭奭을 郭趨(7.20)으로,

또 밀양의 小訥 盧相稷 집안에서 전해오던 草稿本 「蓬山浴行錄」[小訥家藏本] 1책이 있었다. 이 책은 정재기가 회연본을 편집할 때 『석담집』 수록본과 함께 참고하여, 定本을 저술해 인쇄했다고 하였는데⁵¹⁾ 현재 전하지 않고 있다.⁵²⁾

이번에 발견된 『석담집』 정고본을 『석담집』 목판본과 비교해 보자. 정고본에는 8,111자나 되는 장문이었는데 목판본에는 5,702자였다. 목판본에서는 70.3%만 반영하고 29.7%를 산삭하였다. 정고본에는 한강을 표기할 때 ‘先生’ 字 위에 1자 空格을 두었다. 존경의 의미인데 환산하면 110여 자쯤 된다. 그러나 목판본에는 공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썼다. 그뿐 아니라 일기에서 대부분 표기하는 날씨가 삭제되고, 일부 인명이 삭제되어 있다. 따라서 『석담집』 목판본은 본고에서 논외로 한다.

『석담집』 定稿本의 「蓬山浴行錄」을 檜淵本⁵³⁾과 비교하면 회연본에서 <표2>와 같은 내용 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2> 「蓬山浴行錄」 定稿本 대비 檜淵本의 내용 양상

版	일자	회연본의 추가	회연본의 산개	회연본의 삭제	비고
1a	7.20		⑩郭慶興→郭慶馨		
1b	"	⑧李蘭貴			
2a	"		②微癘→疾疴 ③城主前→先生	②送爲謝, 暫致行驢	11首 : 鄭在教

신안현감 金中淸을 尹渙(7.20)으로, 徐強仁을 徐殆仁(7.27)으로, 徐思道를 徐思選(8.30)으로 표기하는 등 인명의 誤記가 있다.

51) 鄭在夔 編, 앞의 책, 鄭在夔 跋, “頃年始得一本, 於石潭集中, 近又草藁一冊, 來自凝川 盧學士家, 比前本互有詳略, 且字書或不無異同. … 遂參考兩本. 因略以致詳. 取同而存異. 著爲定本. 付諸活印.”

52) 小訥 藏書는 부산대 小訥文庫(OFC 2-7 279A)에 있는데, 이 책은 없고 다만 盧相稷 이 지은 「蓬山溫泉浴行日記」(1925.8.25.~ 8.29.)가 있다. 이 책에 대한 논문은 “이 대회, 「<봉산온천욕행일기>에 나타난 노상직의 동래온천 여행과 그 의미」, 『동양한 문학회연구』 62, 동양한문학회, 2022.”가 있다.

53) 회연본의 전체 글자 수는 9,777자로 확인된다. 내용 중 공란 529자를 제하면 실제로 9,248자다.

版	일자	회연본의 추가	회연본의 산개	회연본의 삭제	비고
			④七絶詩:李籥→盧世厚		後識 참조
2b	"		⑤七絶詩:李彦英→盧垓		
4a	7.21	②鄭惟輝·鄭惟煥 ⑧香附子·枳殼·白茯苓·神曲·香薷			
4b	7.22	①盧僉知毅甫[克弘],備朝飯以進 ②李後剛·崔斯立 ④金壽怡父子亦退去			
5a	"	⑤李道輔·李道純 ⑨李碩慶			
5b	7.22 7.23	④與碩慶共(入) ⑧合生脈散加材如前	⑨太守備朝餉→朝飯		⑨부터 23일
6a	7.23	⑩七絶詩:盧克弘	⑤郭監司→郭忘憂	⑥(誠有可尙)學仙而不得仙 ⑦太守將欲辭出	9首 : 鄭在教 後識 참조
7a	"	④七絶詩:盧垓 ⑦與碩慶共(入) ⑧克弘·潤雨			
7b	7.24	⑨盖先生童非時受學於德溪故		⑧(歎賞久之)奇相公以爲第一云	
8a	"	⑥道孜,世厚,垓			一部倒 置
9a	7.26		⑩草屋二間→草屋二室一廳		
9b	"	⑥郭後泰·文夏鼎·辛緯南·金榮			郭後 [俊]泰
10a	7.28	⑨送軍官領率役夫 ⑩又作二間爲廚舍爲虛廳,以爲下人容接之所			
10b	7.28 7.29	②邑居金禹鼎·文澤龍來謁 ③與垓(陪沐) ⑥道一·李司果 ⑧及垓(陪入) ⑨邑人鄭泰夏來謁 ⑩甲鰓生廣魚等物			⑧부터 29일

版	일자	회연본의 추가	회연본의 산개	회연본의 삭제	비고
11a	7.29 7.30	①其還付去城主書及本家書.李堉以載船卜物輸來事,借得人馬往仇法谷,夕還.李司果·李厚慶·李道一往見府伯,夕還 ⑥合生脈散一點 ⑧及垓(陪入) 收稅官尹民逸,遣軍官問安 ⑨且送朝報及都日政事			⑧30일 一部倒置
11b	7.30 8.1	②夕都得俞來謁.唐浦萬戶,送千乘一部 ③道一(陪宿) ⑤香附子·白茯苓·神曲·香薷·縮砂 ⑦李司果·安珀同來,以試鍼事,府伯率去 ⑨府居校生朴大叟來謁,進魚菜等物.座首朴希根來謁,進葡萄一器.別監文道明·機張辛起雲來謁			⑦부터 1일
12a	8.1 8.2	②及三色瓜 ③合生脈散加枳殼 ⑤道一 ⑥府伯遣軍官問安.先生命招支應監官金應銓饋酒.邑居金禹鼎·文澤龍來謁,進葡萄一器		⑨(致膳事)先生辭之	⑤부터 2일 一部倒置
12b	8.2 8.3	①合生脈散加材如前 ④府伯遣軍官問安 ⑦以右道東堂試官,還到密陽卒遇大水,沉其行李,盡爲漂流,至於領卒二名,不知去處云.府伯送左右道東堂榜目.夕召募將鄭夢星來謁			④3일
13a	8.3 8.4	⑥克弘·天封·道一陪宿先生 ⑧道一 ⑨府伯遣軍官問安 ⑩合生脈散加材如前	②命→顧謂		⑧부터 4일

版	일자	회연본의 추가	회연본의 삭제	회연본의 삭제	비고
		道一			
13b	8.5 8.6	⑤召募將來謁 ⑥道一,(筭),潤雨(陪入) ⑦新安鄉校人選,答付諸處 簡人馬使於十七日由泗水 發來 ⑨儒生鄭泰夏·金禹鼎·郭 後泰·文澤龍·朴希根·朴大 叟·辛緯南·金士吉·金世仁· 宋憲·金俊英等,各獻一酌		④先生服平胃散 ⑤克弘·厚慶·道孜· 潤雨往宿于召募廳	⑥부터 6일
14a	8.6 8.7	⑦川路險惡馬蹄穿破不能 運步矣 ⑩(奴南元)以沐浴事陪來 矣			⑩부터 7일
14b	8.7	⑩~15a③百會~安珀執鍼 [50字]	⑦金知復→金知得 ⑧傳書→專人	④且送新稻米酒肴 等物.清道紫川書院 生趙成麟等遣人問 安	清道問 安件: 8月 9 日 에 載錄
15a	8.7	③·道一			
15b	8.9 8.10	①清道紫川書院生趙成麟 等遣人問安 ③辛按南·昌寧金廷直來 謁,崔上舍進新稻米一斗 ⑤梁彥龍來謁 ⑥潤雨等數問病 ⑧夜大雨,梁彥龍辭歸 ⑩邑儒郭俊泰來謁		④上舍(辛邦楫)	⑧부터 10일 郭俊 [後]泰
16a	8.11	⑧召募別將鄭夢星來,設酌 于先生及從者			
16b	8.12 8.13	⑤米石 ⑩機張金言來謁.垓等亦 浴.昌寧河瀟來謁			⑩13 일
17a	8.14	③遣其邑品官 ⑤水使亦送軍官問安			
17b	8.15 8.16 8.17	①府伯以前馬帶歸 ②水使亦赴,以日暮只送軍 官問安 ③鄭受吉保生等,赴場市, 與監場者相關,保生重受毆		⑩今始(來謁)	③毆打 事件 ⑦부터 17일

版	일자	회연본의 추가	회연본의 산개	회연본의 삭제	비고
		打,受吉兩指見嚙流血淋漓可駭.監場者先自來,告言辭悖慢,尤可駭也 ⑦別將來謁,仍向巡使行次所.大邱			
18a	8.18	①金海許景栗來謁,新山院生申英義·安樸來謁,進鹿脚,李泰崢亦來謁 ③見府刑吏告目以鄭受吉鬪事.所謂監場者購報府伯,府伯徑信先入之言,令促囚行次奴子,府伯處置未可知也,一行莫不恠訝.或有請接訴而行者,或有請謝遣下人者.先生曰所失在彼,於吾何損,徐觀其所爲而處之,亦不晚也.仍具由馳書于茂伯,盖茂伯方在府伯處也.			毆打事件
18b	8.19 8.20	②別將遣松茸 ③許景栗·申英蒙(等獻酌).申英義更獻盃酌,未畢,收稅官自椒泉歷謁,因參酒席 ⑤遁辭極口囚奴之事,未安之態,見於顔色可笑可笑 ⑩李汝懋[厚慶]·盧世厚入府,盖慮其府伯,過刑監場者故也			⑤⑩ 毆打事件 ⑩20 일
19a	8.20 8.21	①朴峻		⑤以浴而來入謁	⑤21 일
19b	8.22 8.23	②徐恒辭歸 ③本邑朴希宏來謁 ⑧水使令婢子彈琴唱歌,行盃四五巡 ⑨郭俊泰來謁			⑧23 일
20a	8.24	①盧克弘 ②東萊鄉校儒生朴大叟,遣儒生李士林問候,且送米魚菜物 ⑤李司果	⑤李碩慶→李厚慶 ⑩李道孜→盧世厚		

版	일자	회연본의 추가	회연본의 삭제	회연본의 삭제	비고
		金貴精·張益奎 ⑧盧垓·李전(日+殿)等不得同參沒雲之行,遂與李廷翼·李繼胤·朴峻·崔迥,因投釜山,登甌城觀海,乘夕而歸.都事辭歸向蔚山			
20b	8.25	④盧克弘 ⑤金海曹元海 ⑥盧垓直日	⑩李榮復→李榮俊		
21a	8.26 8.27	①朴希宏·金禹鼎·郭俊泰·金俊英·辛起雲 ④先生(以病未見).崔興國·辛按南亦來候,皆未見 ⑦朝不能進食 ⑧東萊金俊榮·金柱國等辭退 ⑨(盧僉知克弘)與其子世厚亦拜(辭)于先生,命其孫垓陪先生而歸	⑦李전(王+殿)→李전(日+殿) ⑨盧僉知克弘·盧垓等辭退→원편 ⑨ 대체		⑦부터 27일
21b	8.27	①辛安南等 ②路中遇雨,着雨具,即晴 ③以其妻父郭慶霖病重故		⑥都事·梁山迎謁	一部倒置
22a	8.28		④趙曄:生庚申→生壬申 [庚申임] ⑧號梅塢→號東湖	②(都事爲設酌)辦自梁山	
22b	"	⑤光州盧垓,字子宏,生戊戌,號菊潭			同話錄
23a	8.28 8.29	④東萊筵工歸付府伯書 ⑦(崔興國諸人爲設酌)且有軟泡(甚示款意) ⑧~23b ②先生吟一絕詩,贈崔上舍曰~崔上舍奉次曰~青眸相對杳難緣 [73字]	①尹孝全令公→尹孝全 ②探候→探侯		④29일 ⑧詩 2수
23b	8.30	⑧寓于疾旨崔上舍家	⑥權循性→權修性		
24a	8.30 9.1	②彥陽安龜命祺伯·金善立·卓甫辭歸		①權循性亦來謁	②1일
25a	9.1	①盧垓子宏	④共四十三人→共四十四人	⑩(弟子之禮)可尙也已	懷古錄

版	일자	회연본의 추가	회연본의 삭제	회연본의 삭제	비고
25b	9.2	④孽侄尹綱·尹銓			
27b	9.4	⑩李厚慶			追來者
28a	"	②盧垓	⑦柳僉知堯臣→李僉知堯臣		
28b	"		③盧克弘→呂弘		
29a	9.4 9.5	①盧垓 ⑨盧垓亦告歸,先生以寄甥書付之	④李僉知浚→李僉知俊		⑨5일
29b	9.5	③十六度,浴內石井者	①在蓬山者三十日→在舟者六日 ⑤初秋中旬登道季秋四日→九月初四日始得		

※문맥이 통하는 외자나 單句는 비교에서 제외하였고, ○속의 번호는 해당 版의 行數이며, ()안의 글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 넣은 원본의 글임.

정고본의 몇 가지 예를 보면 ①城主가 시 1편을 보내자, 제자들이 화답 시를 지으니, 城主前[선생]에 글을 써서 謝禮(7.20), ②7언시 가운데 2수 原著者[다른 저자] 변경(7.20), ③7언시 가운데 없는 2수[추가] 수록(7.23), ④태수가 갖춘 아침밥[아침밥] 축소(7.23), ⑤趙曄의 庚申生[壬申生] 오기(8.28)⁵⁴, ⑥자천의 유생 등이 사람 보내어 문안한 일자 8월 7일[8월 9일] 誤編(8.9) 등이 나타나는데, 회연본에는 []와 같이 되어있다. 정고본의 특징이라 하겠다.

정고본에서 수령을 표기할 때는 대체로 水伯, 府伯, 慶尹, 太守(또는 主倅), 使相 등으로 표기하였는데 회연본에서는 각각 水使, 府使, 慶州府尹, 府使·郡守·縣監, 監司 등으로 대체하였다. 회연본에서는 인명의 오탈자가 더러 보인다. 같은 사람을 郭後泰·郭俊泰, 辛按南·辛安南, 金俊英·金俊榮 등과 같이 표기하였다.

定稿本은 일반적으로 初稿本의 刪改한 내용을 반영하여 再編한 것이

54) 『국조방목』[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趙曄은 1560년생으로 1591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다. 『석담집』 정고본의 내용에 ‘刪’을 표시한 부분이 몇 곳 있다. 글을 보면 온천에 醫員 安珀이 머무르고 있음에 대해 ‘선생이 얻었으니 매우 다행함(先生得之 以爲大幸)’, 水使가 술을 올린 뒤에는 ‘천막 친 곳으로 나와 우리 6명이 마주보며 함께 마심(出幕次吾輩六人相對共酌)’, 현감이 백사장에서 천막을 치고 기다렸는데 선생이 돌아보지 않고 노를 재촉함에 대해 ‘돌아보지 않음(不顧)’ 등 밑줄 친 부분을 刪削하게 하였다. 그러나 회연본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즉 정재기가 회연본을 편성할 때는 이 定稿本을 목집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정재기가 “몇 년 전에 『석담집』에서 한 부를 처음 얻었다.”⁵⁵⁾라고 한 그 책은 어떤 것일까? 아마도 『석담집』의 初稿本의 내용일 것이라고 본다.⁵⁶⁾

이와 관련하여 회연본에서 추가된 내용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8월 16일 : 鄭受吉과 保生 등이 시장에 가서 시장 감독자와 싸웠는데, 보생은 심하게 구타를 당했고 정수길은 두 손가락을 깨물려서 피가 낭자해 놀라왔다. 감독자가 먼저 스스로 와서 고했는데 인사가 폐약하여 더욱 놀라왔다.

8월 18일 : 동래부 刑使가 정수길의 싸움 일로 告目[公의 文書]을 가져왔다. 소위 감독자라는 자가 부사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자, 府使는 먼저 들은 말을 경솔하게 믿고는 수행하는 종을 잡아들이도록 명령했다. 부사가 어떻게 처결할지 알 수 없었으니 일행들이 의아해하지 않음이 없었다. 어떤 사람은 정식으로 고소하러 가자고 했고, 어떤 사람은 하인을 보내 부탁하자고 했다. 선생은 “잘못이 저들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손실이 있겠는가! 천천히 하는 바를 보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고는 무백[이운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무백이 부사와 같이 있기 때문이다.

8월 19일 : 府使가 와서 뵈었는데, 종을 가둔 일을 온갖 말로 둘러대면서 미안한 얼굴을 지으니 참으로 우습다.⁵⁷⁾

55) 鄭在夔 編, 앞의 책, 鄭在夔 跋, “頃年始得一本, 於石潭集中.”

56) 「봉산욕행록」, 『二水同話錄』의 同參자가 정고본에 51명이라 표기하고서는 44명만 수록하였고, 회연본에서도 51명이라 하고는 44명만 수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初稿本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

57) 번역된 인용문은 “이세동 역, 『봉산욕행록』, 성주문화원, 2016.”을 취하였다. 이하

8.16.~8.19.의 기록에는 동래부의 폭행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을 동래부사가 가해자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처결하려고 하는 데 대해, 한강이 조용히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 사건이 빠르게 처결되었는지 부사가 와서 온갖 말로 둘러대며 미안해하자 참으로 우습다고 하였다. 한강의 애민정신이 감지되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후대의 관점에서 보면 산삭할 가능성이 있다. 3일 중 핵심은 8월 18일 자로, 회연본에 추가된 원문은 106字이다. 그런데 정고본에서는 “先生朝浴石井 午再浴 夕水伯自蔚椒還 歷謁而歸”라며, 20字만 기록되어 있다. 정고본의 46일간 일기 가운데서 가장 짧은 기록이다. 초고본에서는 회연본에 삭제된 106자를 포함하여, 최소한 126자는 기록되어 있었다고 본다. 이 밖에 8월 23일의 “水使가 계집종에게 가야금을 연주하며 노래 부르게 했다.”라는 내용이 회연본에 추가되어 있는데, 한강선생의 치병과 관련한 온천장의 일로,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회연본에는 <표2>와 같이 인물이 추가되어 있다. 선생 문인은 盧克弘(7회)·盧世厚(5회)·盧垓(15회)를 포함하여 李碩慶(3회), 李厚慶(4회), 李道孜, 李潤雨(3회), 李道純, 李道輔, 李道一(8회), 李蘭貴, 張益奎, 崔興國, 金善立, 安慄, 趙成麟, 李繼胤 등이다. 반복된 이름은 정고본에서 생략할 수 있다. 동래부 거주자는 朴希根(2회), 文道明을 포함하여 郭後泰[郭俊泰](5회), 金禹鼎(4회), 文澤龍(3회), 朴大叟(3회), 金俊英[金俊榮](3회), 鄭泰夏(2회), 朴希宏(2회), 辛起雲(2회), 文夏鼎, 辛緯南, 金榮, 辛緯南, 金士吉, 金世仁, 宋憲, 金柱國, 李士林 등이다. 선생을 위해 지극 정성을 다한 사람들인데, 師承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후대 사람들이 輕視할 수 있다.⁵⁸⁾

앞서 정재기는 당시 『석담집』 수록본과 小訥家藏本을 참고해서 定本

번역문도 동일하다.

58) 광산이씨본에는 석담 정고본에서 빠진 동래부 거주자들의 인명이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 『석담집』 초고본에 이들의 명단이 다 수록되었을 것인데, 定稿本 편성 당시에 산삭된 것이라고 본다.

으로 삼았다고 했다. 그러나 회연본의 여러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소
능가장본의 「봉산육행록」은 『석담집』 수록본을 底本 삼아서 내용을 增
損한 것이라고 본다. 특히 회연본에는 盧克弘, 盧世厚, 盧垓 등의 七絶詩
가 있는데, 7월 20일 노세후·노해 작품은 타인의 것이고, 7월 23일 노
극흥·노해 작품은 추가된 것이다. 노해의 경우 정고본에는 8월 27일
“盧僉知 克弘·盧垓等 辭退”라 하여 작별하고 떠났음에도 회연본에서는
“僉知 盧克弘이 그 아들 盧世厚와 함께 선생께 절하고 작별하면서, 손자
盧垓에게 선생을 잘 모시도록 명하고 돌아갔다.”⁵⁹⁾라고 하여 잔류한 것
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8월 28일 통도사 동화록의 “光州 盧垓, 字子宏,
生戊戌, 號菊潭”과 9월 1일 포석정 회고록의 “盧垓 子宏” 표기는 정고
본 기준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다.⁶⁰⁾ 선대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

2) 내용적 특성

한강선생의 치병 목적으로 봉산 온천에 가는 일은 1617년 2월 16일
부터 사빈서재에서 강학하였던 문인들이 주도하였다. 전체 85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44명⁶¹⁾이 한강선생과 더불어 봉산 육행을 함께 했거나
도중에 선생을 맞이한 사람들이란 점에서 입증된다.

출발 날짜는 1617년 7월 20일로, 한강 정구는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수동을 출발하였다.⁶²⁾ 온천육 행차는 그날로부터 9월 5일까지 46일

59) 「봉산육행록」 8월 27일 조, ‘盧僉知克弘盧垓等辭退’를 ‘盧僉知克弘(與其子世厚亦拜) 辭(于先生 命其孫垓陪先生而歸)’라 하였다. 노해를 삭제하고 ()를 추가하였다.

60) 노해는 9월 4일자 追來者 명단에도 있는데, “노해가 돌아가기를 고하니 선생이 생질
에게 보내는 편지를 부쳤다(盧垓亦告歸 先生以寄拂書付之).”라고 되어있다. 이때 노
해가 다시 왔는지 알 수 없다.

61) 이서, 이운우, 이천봉, 이학, 이난귀, 유무룡, 김대택, 이명룡, 최은 광근, 김절, 이문
우, 이기우, 이난미, 이심홍, 이시우, 채몽연, 손처약, 광경홍, 이륙, 정천주, 이후경,
이도자, 이도창, 손처눌, 배상지, 최린, 이흥우, 이종, 박광성, 정유약, 손우남, 도여유,
배상룡, 이시간, 이육, 도성유, 서사선, 이륜, 손항, 손설, 이우량, 광양형, 이시협 등
44명으로 확인된다.

62) 채몽연, 광영희, 이천봉, 이언영, 이운우, 배상룡, 이명룡, 유무룡, 이난귀, 이학, 정천
주 등이다.

간 진행되었다. 이 행차에서 석담 이운우는 스승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셨다. 동래 온천에 있는 동안에 한강선생은 석담에게 퇴계 이황의 「禮疑答問」의 큰 제목을 쓰게 하였고, 제자들과 더불어 「예의답문」과 「五服沿革圖」를 강론하여 결정하는 한편, 다시 석담에게 「오복연혁도」를 繕寫하도록 하였다. 한강은 특히 예학을 중시하였으니, 이러한 일을 오직 석담 이운우에게 위임한 것은 바로 석담에 대한 한강선생의 기대가 그만큼 컸던 것이며, 高弟의 한 사람으로 촉망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육행의 이동 경로를 보면 泗水에서 출발하여 칠곡 枝巖에서 배를 타고 현풍, 고령, 창녕, 의령, 칠원, 함안, 영산, 창원, 밀양, 양산, 김해 등을 거쳐 동래로 가서 온천욕을 하였고, 다시 양산, 경주, 영천, 하양, 경산, 대구를 거쳐 사수까지 오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로 수로를 이용한 하행 길 7일에는 강 연안에서 고을 수령과 선생의 문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한강선생을 영접하고 배알하며 배웅한 사실이 나타난다.

창원을 지나던 7월 22일, 한강은 창원부사 申之梯, 한강 문인 張益奎 등의 영접을 받았다. 창원에는 한강이 창건한 觀海亭이 있던 곳인데 배알한 장익규가 1617년경에 관해정을 重建하였다.⁶³⁾ 장익규는 이날 선생을 뵈고 이튿날 돌아갔다가 다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동래온천에 머물면서 선생을 위해 술을 베풀기도 했다. 당시 관해정으로 인한 사제 지간의 회고와 정담을 나누었다 하겠다. 그는 뒷날 昌原 檜原書院의 건립을 주도하였다.⁶⁴⁾

63) 鄭述, 앞의 『寒岡集』, 권9, 「書舊時海亭詩後」, “癸卯冬, 余始返故山, 越明年, 咸州士友輩, 相與結茅數椽, 張文哉[張益奎 字]適假居其傍, 協力成就. 纔十年而屋又傾頽, 則勢將還爲路傍之棄地, 文哉更闢址列礎, 架樑覆瓦, 經營數載, 費盡辛苦. 余因浴海而來, 輪奐之美, 結構之精, 不惟不啻前日之草舍, 而又非余當初所望也.”

64) 成大璣, 『眉山逸稿』, 석판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고811.081성대진교), 卷上, 「于房張公[益奎]行狀」, “先生宰咸安, 咸之距檜原甫一舍地, 公往來講質, 多有獎誦. … 己未[1619]先生以風濕, 浴海水於馬山浦, 仍留海亭月餘, 遂有挈家終老之計, 其餘糧什物付託于公, 結以後約, 未幾先生易簀, 後十五年甲戌[1634], 公與列邑章甫, 議建檜原書院. 以所居正寢之基, 爲廟宇基址, 草堂之基, 爲講堂基址, 其樽籩之品, 絃誦之節, 商確酌定. 至今遵行, 則公之一生扛奩於岡門諸賢, 可謂最有功焉者矣.”

한강선생은 동래 온천에서는 30일 동안 머물면서 목욕과 복약, 시침 등으로 병을 다스렸다. 상행 길 9일에는 주로 육로를 이용하며 각종 만남을 통해 행차의 의미를 부각하였다. 또 일기의 내용에는 경유한 지명, 여행길의 숙박, 온천욕의 횟수, 참여자의 명단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 사실을 후대에 알리고자 한 석담의 문헌 정신이 잘 드러나고 있다.

석담의 「봉산욕행록」을 보면 내용이 간결하고도 세심하여 일자, 날씨, 선생의 언행, 제자들의 수행과 시중, 순행 길의 영접, 접대, 배웅, 복약, 직일[일직]⁶⁵⁾ 등을 기록하였는데 인명은 최대한 수록하고자 한 흔적이 보인다. 수록된 인명은 문인, 내방인, 수령방백, 관원, 유배인, 사림, 동자 등 314명으로 확인되는데 그 가운데 한강선생의 문인 또는 문인이 된 사람이 110명에 이른다.⁶⁶⁾

욕행의 여정에 현직 지방관이 직접 또는 사람을 보내어 문안하거나 영접을 하였다.

대구부사(李燾), 신안현감(金中淸),⁶⁷⁾ 초계군수(李光胤), 창녕현감(尹民哲), **장원부사(申之榭)**, 경상도사(安璫), **밀양부사(李弘嗣)**, 김해부사(曹繼明), 동래부사(黃汝一), 경상좌수사(金基命), 당포만호(卞時 敏), 收稅官(尹民逸), 칠포만호(鄭滂), 부산첨사(吳大男), 양산군수(趙曄), 소모별장(鄭夢星), 장기현감(申邦檣), 사도첨사(鄭忠說), 하동현감(成天裕), 황산찰방(趙存中), 울산관관(崔鈞), 언양현감(琴德和), 경주부윤(尹孝全), 경주관관(許鏡), 삼례찰방(李宜潛), 하양현감(蔡得), 경산현령(李忭), 경상감사(尹暄)

65) 直日 명단은 7.20부터 7.28까지는 광산이씨본에 이명룡, 이서, 이천봉, 이도자, 이육 등 5명이 기록되어 있고, 7.29부터 8.24까지는 석담 정고본에 22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중간에 일부가 빠졌다. 첫날 이명룡이 맡은 이후에는 이도자(6), 이서(5), 이천봉(5), 이육(5), 이후경(5) 등 5명이 전담하였다.

66) 崔性郁 편, 『檜淵及門諸賢錄』(석관본)에서 92명, 『사빈서재식기안』에서 추가 12명, 한강학연구원 편, 「한강급문제현록」에서 추가 6명 등 110명으로 확인된다. 현재까지 조사된 문인은 405명이다.

67) 金中淸, 『苟全集』(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구전연보」를 보면 김종청이 42세가 되던 丁未年(1607) 4월에 “拜寒岡鄭先生于安東, 時鄭先生爲府使, 聚士講心經先生往拜, 仍留講.”이라 하였다.

현직 지방관이 28명이나 된다. 전직 함양군수李大期도 직접 문안하였다. 이들 가운데 한강 문인은 밀줄 친 것과 같이 5명이다. 경주부윤 윤효전은 한강선생을 대접하는 성의와 공경이 극진하였는데 몸소 제자의 예를 갖추었다.⁶⁸⁾

한강선생께 문안했던 사람 중에는 귀양살이 하던 성균관 전적 林檜가 있었는데, 그는 鄭仁弘의 무함으로 왕의 친국을 받은 뒤 양산에 유배된 사람이다. 또 술과 안주를 갖추어 와서 선생께 올린 童子 宋知述(1603~1631)은 만 14세의 소년으로 확인된다.

「봉산옥행록」을 보면 동래로 가고 오던 여정 중에서도 동래 온천에서 한강의 언행이나 후덕한 풍모를 기록하고 있다.

7월 21일 : 도동서원 원장 광근의 음식 대접이 성대함에 지나치다고 깊이 책망하다.

7월 21일 : 선생이 배 안에서 법도를 어긴 일로 이숙발에게 큰 잔을 들어 벌주를 마시게 하였는데, 대개 이숙발을 公事員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7월 22일 : 밤에 풍우가 크게 일어나자 선생이 배에서 자는 사람들 안전을 걱정하여 밤잠 이루지 못 하다.

7월 26일 : 선생이 동래부사에게 음식 대접, 거처 마련 등이 너무 지나치게 융숭하여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는 뜻으로 극진히 사례하고 관가에서 제 공하는 물품은 사양하다.

8월 2일 : 이육이 약 달이는 일을 감독하면서 알맞게 조절하지 못하자 선생이 꾸짖어 책망하다.

8월 3일 : 이육이 전일 약을 달일 때 약재를 놓지 않고 달이는가 하면, 너무 달여서 모두 태워버리기도 하는 등 혼이 난 관계로 정성을 다해 다시 달이기를 원하자 선생이 허락하였다. 선생이 李厚慶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어제 이미 잘못 달았는데 오늘 또 다시 달이기를 허락하였니, 허물이 실로 나에게 있다. 너는 나를 꾸짖도록 하라.” 하였다. 이육이 황공하여 사죄하자 선생이 물 7홉을 더 붓고 다시 달이게 해서 드셨다.

8월 12일 : 선생이 官家에서 제공한 물품들을 사양하여 물리고 관가에서 접대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을 돌려 보내다.

68) 「봉산옥행록」, 정고본, 9월 1일 조, “主尹 侍先生極其誠敬, 親執弟子之禮, 可尙也已.”

한강의 언행을 요약하면, 선생은 대접이 과한 것을 배척하였고, 官家의 물품을 사양하는 公私意識이 분명하였으며, 단체 생활에서 제자가 공적 일을 맡았을 때는 책임지게 하였고, 제자가 잘못하면 꾸짖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허물을 자신에게 돌리는 등 엄격하면서도 후덕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정우락 교수는 이 책이 단순히 한강 정구의 치병을 위한 여행일기라고 하겠지만, 여행문화, 치병문화, 접대문화, 기념문화, 추모문화, 강학문화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발견된다고 하였다.⁶⁹⁾ 한편 한 자리에서 술잔을 돌리며 대화할 때의 자리 위치는 벼슬한 자가 윗자리에 앉고 그 아래에 나이순으로 앉았던 사회풍속을 보이고 있다.

김학수 교수는 「봉산욕행록」에서 포착되는 사제의 움직임은 활발하다고 하며 한강학파의 인적기반에 주목하였다. 특히 봉산 욕행의 旅程이 인간·공간적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전제한 후 경주의 東都懷古錄과 花潭學의 수용, 二水同話錄에 나타난 芝山·寒岡·旅軒學의 교류와 경쟁, 광재우의 滄巖亭에 대해 한강의 默言에 따른 南冥學과 退溪學 사이에서의 갈등 등을 상세하게 구명한 결과 한강학파 인적 집단의 확대·경쟁·갈등 양상이 있다고 역설하였다.⁷⁰⁾

한강학파 인적 집단과 관련하여 「봉산욕행록」의 내용을 문헌별로 비교해 본다.

<표 3> 석담 정고본 대비 인명록 비교

區分	石潭 定稿本	檜淵本	光山李氏本
통도사 同話錄	安瑞, 趙曄, 崔興國, 李厚慶, 林檜, 李籥, 李天封, 李潤雨, 李埴, 任以賢, 權鏗, 河弘濟, 朴敏修, 崔東彥, 徐強仁, 孫沆 (16명)	·增(盧垓) (17명)	·增(李命夔) (17명)
포석정 懷古錄	尹孝全, 孫處約, 韓克孝, 李厚慶, 鄭四象, 孫宇男, 李籥, 李天封, 李潤雨, 金得義, 李琮, 徐思道, 李埴, 都汝俞, 李	·增(盧垓) (44명)	·增(李命夔, 盧垓) ·損(金得義, 李琮, 徐思道, 黃中信, 李

69) 정우락, 「봉산욕행록」에 대한 문화론적 독해, 앞의 책(이세동 역), 131쪽.

70) 김학수, 「<봉산욕행록>을 통해 본 한강학파의 인적 기반, 앞의 책(이세동 역), 93쪽.

석담 이윤우의 한강학파 기반 조성(장인진)

	宜潛, 朴喲, 鄭克後, 朴晁, 郭霽, 河弘濟, 吳姬翰, 黃中信, 李海容, 李穩, 李壘, 吳姬幹, 李煜, 任以賢, 李汝龍, 朱灌, 李啓後, 崔東美, 權鎔, 朴敏修, 崔東尹, 金埶, 鄭璧, 權葑, 韓應命, 徐強仁, 孫沆, 金世弘, 盧珪 (43명)		海容, 李穩, 李壘, 吳姬幹 (37명)
이수 同話錄	鄭湛, 朴士愼, 孫處約, 朴點, 成立, 李國賓, 鄭四象, 孫宇男, 李君賓, 李用賓, 都汝俞, 鄭四勿, 金就礪, 孫興雲, 鄭經道, 朴喲, 朴晁, 成以直, 朴찬(日+榮), 黃中信, 李海容, 成以諒, 曹輞, 鄭顯道, 李好榮, 朴文孝, 孫季昌, 孫滄, 李喜榮, 盧珪, 鄭憲道, 成以寬, 朴敏修, 徐強仁, 孫沆, 鄭弘道, 權鎔, 權葑, 李啓後, 崔經濟, 李時榮, 李時幹, 曹舫, 田汝翼 (44명) *共51 표기, 실제 44명[7명 삭제]	·左同 (44명) *共51 표기	·增(李命龍) ·損(成以直, 朴찬(日+榮), 黃中信, 李海容) (41명)
하양 식송정 會錄	金四行, 金四聰, 徐思選, 許士中, 曹誠, 許士衡, 蔡集, 金四知, 金四美, 朱洛, 柳時藩, 陳晁, 崔山岳, 柳規, 徐愼, 金應鳴, 崔熙止, 崔敬止, 全克昌, 李起業, 朴起先, 李光闔, 朴亨, 朴挺立, 許遠, 李宗老, 李蘭貴, 曹以咸, 朴春, 朴光星, 蔡得(主伴) (31명)	·左同 (31명)	·增(李蘭美) (32명)
경산 追來者 名錄	孫處約, 鄭四象, 孫宇男, 李文雨, 曹以咸, 都汝俞, 鄭四勿, 朴喲, 李海容, 曹輞, 鄭顯道, 孫滄, 朴敏修, 朴宜謹, 李時旻, 李時幹, 曹舫, 田汝翼, 裴尙志, 徐思選, 許士中, 許士衡, 金四行, 金四聰, 柳時藩, 陳晁, 呂應周, 陳擘, 蔣以愿, 丘信立, 韓景祺, 朴忠男, 方克誠, 柳規, 徐愼, 金應鳴, 韓景祚, 李光闔, 許遠, 李宗老, 李蘭貴, 李煜, 鄭憲道, 蔡先見, 孫沆, 韓珣, 李尙眞 (47명)	·增(李厚慶, 盧垓) (49명)	·增(李厚慶, 李命龍, 李蘭美, 盧垓) ·損(朴敏修) (50명)

인명록은 <표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문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양산 통도사의 同話錄, 경주 포석정의 懷古錄, 영천 二水 물가의 同話錄, 하양 植松亭 會錄, 경산까지 追來者 명록 등 181명이라는 방대한 인명록을 남긴 것은 주목할 만하다.⁷¹⁾ 이러한 인명록에 대하여 현대

71) 광산이씨본의 ‘김득의,이중,서사도’, ‘황중신,이해용,이운,이용,오희간’, ‘성이직,박찬,

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한강학단의 결속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라 하겠다.

4. 사빈호상록

「泗濱護喪錄」은 이윤우의 『석담집』(목판본)에 수록되어 세상에 전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이 자료의 定稿本을 「봉산욕행록」과 함께 입수하게 되었다. 이에 「사빈호상록」의 정고본과 목판본을 비교해 보니, 정고본에 4,325자였는데 목판본에는 3,299자였다. 목판본에서는 76.3%만 반영하고 23.7%를 산삭한 것이다.

「사빈호상록」은 1620년 1월 5일 한강이 별세하자 護喪을 맡은 석담 이윤우가 선생의 장례 과정을 꼼꼼히 기록한 것으로, 내용은 1619.11.28~1621.1.6까지 115일분의 일기이다. 석담은 앞서 <봉산욕행록>을 편성한 것이나, 이러한 「사빈호상록」을 지은 것은 기록문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자의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한강선생 별세 당일에 여러 벗들이 석담 李潤雨를 護喪으로 삼았고, 1월 9일 석담은 여러 문인과 상의하여 執事를 분정하였는데, 여헌 張顯光에게 청하여 都護喪을 맡게 하고 호상을 4명 더 보강하였으며, 집례도 정하였다.

석담이 쓴 「사빈호상록」의 내용을 간략히 간추려 본다.

- 1619년 11월 28일 : 한강선생이 時祀를 행하고 난 뒤 감기 증세 보임. 이즈음에 한강선생이 『예기』에 대하여 강학하고 『가례회통』 등을 베끼게 하였다.
- 12월 27일 : 선생 감기가 심해짐. 이즈음에 朴宗祐, 李濯, 李天封, 孫遜, 都聖俞, 李籟 등이 다녀갔다. (이듬해 1월 3일까지)

황중신, 이해용' 등은 석담 정고본과 회연본에서 서로 연결되는 인명인데 편집 당시에 인명을 옮기면서 누락한 것 같다.

노해의 경우 석담 정고본을 보면 8월 27일 떠났는데 회연본에 성명이 들어 있고, 광산이씨본에서도 9월 1일 포석정 회고록과 9월 4일 경산 추래자 명록에 그 성명이 들어 있다.

- 1620년 1월 4일 : 선생의 증세가 극중하여 李天封이 와서 모셨다. 저녁부터 기증의 조짐이 있어서 張旅軒[張顯光]에게 급히 알렸다.
- 1월 5일 : 선생의 증세가 극중하여 나[이윤우]와 李籟, 李天封이 곁에서 모셨는데, 선생이 3사람의 字를 각각 부르며 누누이 말씀하였으나 다들 살피지 못했다. 한강선생이 임종하니 여러 벗이 李潤雨를 護喪으로 삼고 여러 집사를 분정하여 각처에 부음을 알렸다.
- 1월 6일 : 목욕, 염습, 소렴을 행하다. 문인 친구들이 관을 벗었다. 이는 樂齋 徐思遠의 초상 때 한강선생의 가르침에 따라서 문인들이 관을 벗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이 한 것이다. 新之[李濯]가 집례를 사양하였다. 會客은 86명이었다.
- 1월 7일 : 張旅軒이 흰 관[白冠] 차림으로 와서 곡을 하였다. 낙제 문인 등이 낙제의 초상을 언급하면서 첫날은 관을 벗고 다음 날에는 갓을 써야 한다고 말하여 이날부터 갓을 썼는데, 장여헌이 흰 관 차림으로 와서 곡을 하니, 모두 갓을 벗고 紙巾을 착용하였다. 會客이 170여 명이었다.
- 1월 8일 : 대렴, 입관, 성복을 마치니, 문인과 절친한 사람들 모두가 환질(環絰)을 쓰고, 弔服에 마(麻)를 더 걸쳤다[加麻]. 會客이 230여 명이었다.
- 1월 9일 : 여러 문인들이 장차 흩어져 돌아가기로 하였다. 張旅軒 어른과 함께 장례를 처리하기로 하고, 이후경·이서·이천봉·이윤우·이탁을 호상, 성변규를 집례로 분정한 후 다들 곡을 하고 흩어졌다. 이후경과 이천봉, 이윤우는 여막 곁에 머물렀다.
- 1월 23일 : 자여찰방 李亨胤이 차출되어 서울로 올라가므로, 그편에 輓紙 22장을 京中으로 보냈다.
- 2월 9일 : 밤에 큰비가 내려서 시내와 육지가 통하지 못하니, 부득이 발인 일자를 물리기로 하여 여러 호상에게 사실을 알리고 또 인접 고을 향교에 통고하였다.
- 2월 13일 : 道昌[李道昌]과 道長[李道長]이 와서 곡을 하였다. 도장[차남]은 歲前에 堤川에 가서 홍역[毒疫]을 심하게 앓고 거의 죽게 되었다가 깨어나서 어제 돌아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와서 곡을 한 것이다.
- 2월 19일 : 輓紙를 더 갖추고자 하여 綿布 2필을 金四行에게 보냈다.
- 2월 29일~3월 1일 : 祖奠에는 이윤우가 제문을 지어 전물을 올렸고, 다음 날부터 발인, 운구하였다.[29일 회객 200여 명], [3월 1일 회객 200여 명]
- 3월 2일 : 張旅軒이 제문을 지어 잔을 드린 후 사직하고 돌아갔다.
- 3월 3일~11일 : 役軍이 묘역에 흙을 채우는 일[補土], 때를 입히고 다듬는 일[莎草], 옛 묘소를 파는 일, 돌을 나르는 일[曳石] 등의 작업을 행하였다(金山軍, 善山軍, 本邑軍 등이 수행함).

- 3월 12일 : 京中の 만장[만사] 21폭이 오고, 선산부에서 감사의 분부로 석회 25석을 보내왔다.
- 3월 17일~24일 : 묘자리를 파고, 壙 속을 다듬고 석회를 채웠다.
- 3월 25일~27일 : 광 옆에 석회와 목탄[숯]으로 칸막이 작업, 광 밑에 송진을 바르고 칸막이 작업, 外楯을 내리고 사방에 송진 바르는 작업, 덩개판 작업 등을 행하였다.
- 3월 28일~4월 1일 : 장례식 준비 절차를 행하였다. [28일 會客 50여 명], [29일 회객 190명, 제문 지어 잔 드린 사람 30여 명], [4월 1일 회객 380여 명, 제문 지어 잔 드린 사람 50여 명],
- 4월 2일 : 辰時에 下棺하니, 주인이 玄纁을 받들어 올리면서 곡을 하고 영결하며 슬픔을 다 하였고, 문인들과 문상객들 모두 비통해하지 않음이 없어서 마치 부모상을 당한 것처럼 하였다. 위패의 題主는 都聖俞가 붓을 잡아 공경히 썼으며, 초우제는 慕庵에서 행하였다.
- 4월 3일 : 신주를 받들어 泗水에 반혼하였는데, 흰 관[白冠] 차림으로 곡하며 따른 사람이 40여 명이었다.
- 4월 4일 : 여러 벗이 머물면서 산역을 감독한 자가 20여 명이었다.
- 4월 5일 : 묘역 작업을 마친 후에 글을 지어 묘에 제사를 지냈다.
- 4월 6일 : (석담)과 이후경, 이서, 이도자, 이천봉, 李埏, 裴尙龍, 李埭, 李堧 등과 함께 돌아와서 저녁에 泗水에 도착하였다.
- 4월 7일 : 아침에 졸곡제를 지내는데 이후경·이도자·배상룡이 돌아와서 마주 보며 통곡하고 목 놓아 울기까지 하면서 송별하였다. (석담이) 여러 벗들과 石物, 遺稿 등의 일을 처리하였다.
- 4월 8일 : 아침에 부제(附祭)[조상의 사당에 새 신주를 모시는 제사]를 지냈는데 (석담)이 이서, 이천봉, 이육 등 여러 벗과 곡을 하며 송별하고 돌아왔다.
- 4월 30일 : 저녁에 (석담)과 金鏏이 사수에 갔는데, 蔡夢硯도 와서 함께 잤다.
- 5월 1일~6월 3일 : 아침 식·망 때 모여서 전을 올리고 곡을 하였다.
- 6월 4일 : 郭稚靜(郭迺)이 보낸 서신에는 선생의 祠堂 세우기를 논하자는 뜻이 있었다.
- 6월 22일 : 상주의 병세가 깊고 중하여 매우 근심스럽고 염려되었다.
- 7월 9일 : 한강선생 생신날인데 여러 벗들이 모여서 곡을 하였고, 향교·서원 합동으로 전물을 갖추고 제문을 지어서 곡을 하였으며, 연경서원에서 別奠을 차렸다.
- 7월 20일 : 상주 鄭惟熙가 22세로 죽다. (석담은) “어찌 이와 같은 비통함이 있는가”라고 탄식하였고, 李濯, 宋汝達, 鄭天澍 등이 와서 염습을 하였다.

- 7월 22일 : 이날 밤에 入棺을 하였다.
- 7월 24일 : 張旅軒과 상의하고 『퇴계선생문집』의 문답서를 상고하여⁷²⁾ 차손자 鄭惟熟[16세]을 權道로 제사를 섭행하기로 하고, 斬喪服[상주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였다.
- 8월 5일~16일 : 광해군이 의식에 따라 致祭하고 賻儀를 내렸다. 8월 6일부터 賜祭官이 내려오는 데 대해 대비하고, 8월 16일에 행사를 하였으니, 사제관 예조좌랑 李惟一, 大祝 신녕현감 全以性, 祝史 하양현감 金大濶, 齋郎 성현찰방 辛敏一 등이 맡았다.
- 9월 13일 : (석담이) 李瑋, 李濯, 裴尙龍 등과 泗水에 서원 세우는 일 등을 논하였다.
- 11월 1일~6일 : 초하루 전을 올린 후, 문인들이 사수의 궤연에 1명씩 돌아가며 番[당번]을 서기로 명단을 짰다. 아침에 李惟遠이 와서 번을 썼으며, 2일에는 李道長, 6일에는 李道昌이 번을 썼다.
- 12월 1일 : 새벽에 일어나 朔奠에 참석하고 李濯·李綸과 함께 書冊·簿錄을 考閱하여 벽 위에 두고 이탁과 약속하기를, 이달 13일에 研經書院에서 만나 「禮說」[오선생예설]을 교정하자고 한 뒤 저녁에 돌아왔다.
- 12월 13일~21일 : 연경서원에서 (석담이) 이탁, 이도창, 이도장 등과 『오선생예설』을 교정하였다. *이때 서원 유생 孫遜, 崔元鎮, 柳思溫, 孫處約 등이 참여하였다. *12월 21일에 『오선생예설』의 교정을 끝내고, 서책을 本院의 書員을 시켜 녹봉정사에 제출하였다.
- 12월 19일 : 돌림 열병[癘疫]이 발생하여 선생을 받드는 궤연[상청]을 慕庵으로 옮겼다.
- 1621년 1월 4일 : 새벽에 출발하여 저녁에 모암에 도착하니, 李厚慶의 叔侄과 郭尙, 朴敏修 등이 이미 와있었고, 우리 고을의 여러 벗도 와서 모이지 않음이 없었는데, 홀로 李箒는 그 사위 金以亨의 초상을 당해 오지 못했다.
- 1월 5일 : 소상제를 행하였다. 상가의 소문을 들어보니, 지극히 궁핍하여 제사 지낼 쌀 또한 계속해서 줄 길이 없으므로, 武屹에 소장하고 있는 쌀 6섬[石]을 실어 주도록 배상룡에게 부탁하였고, 賻木[부의의 포목] 7필과 賃租[무역한 벼] 6섬도 끊임없이 실어 주도록 이천봉에게 부탁했으며, 沙月祠堂을 영건하는 일은 이천봉·이육에게 부탁하였다. 선생의 遺文을 수집하는 일 및 선생의 言行錄을 찬정하는 일을 논의하고자 하여 이달 25일에 川谷書院에서 모이자

72) 李滉, 『退溪集』(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권11, 「答李仲久」에 “母喪身死, 其子代喪之疑.”의 답서가 보인다. 또 “『退溪先生喪祭禮說』,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古5213-149), 「變禮」”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다.

고 약속하였다. 이날 모인 사람은 120여 명이였다.

- 1월 6일 : 아침에 돌아가려고 궤연에 곡을 하고 유숙하는 여러 벗들과 서로 작별하고 돌아왔다.

일기는 1619년 11월 28일 한강선생이 감기 증세를 보인 시점부터 시작한다. 이듬해 1월 5일 한강선생 임종 때는 석담과 李籥·李天封이 자리를 지켰고, 선생의 별세 당일에는 석담이 상례의 진행과 절차를 주관하였다.

1월 9일 여헌 張顯光이 都護喪을 맡았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3월 2일에 사직하고 돌아갔다.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인접 3개 고을의 役軍들을 동원하여 묘역 작업을 하는 등 장례식에 대비하였으며, 4월 2일 하관식, 4월 5일 묘제 등을 마치고 줄곡제·부제의 과정과 삭망전에 참가한 기록을 남겼다. 그뿐 아니라 둘째 아들 이도장이 홍역을 심하게 앓고 거의 죽게 되었다가 깨어난 뒤 바로 와서 곡을 한 일, 상가에 있던 이후경이 그 妻의 부음을 듣고 달려간 일, 선생 소상 때 사위의 초상을 당해 오지 못한 문인의 일 등이 적혀 있다.

7월 20일 안타깝게도 상주가 22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여헌 장현광과 상의하고, 『퇴계집』의 문답서를 상고하여 16세 차손자를 상주로 세운 과정을 기록하였다.

8월 5일부터 16일까지는 조정의 致祭와 관련된 내용으로, 賜祭官은 李惟一, 大祝은 全以性, 祝史는 金大濬가 맡았다. 이 해 연말에는 『五先生禮說』을 교정하였고 소상제를 마친 후에 상가의 지원책도 마련하였다. 그 후 한강선생의 遺文 수집, 言行錄 찬정 등을 논의하고자 약속하였다. 간결한 문체로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상례 기간 중 상가에 다녀간 사람들을 정리해 본다.

- ① 와서 곡을 한 사람(44) : 李潤雨, 李籥, 李天封, 郭尙, 張顯光, 成辨奎, 李灌[2회], 李厚慶, 李道孜[2회], 金大濬(伽川從叔), 李心愨(從叔), 郭大德, 李道一, 盧景任(牧使) 형제[奠物 올림], 李心弘(從叔), 金棗, 李埵, 呂燦, 裴尙龍, 呂弘毅, 郭慶興, 李璣, 李道昌, 李道長, 李滄, 朴宗祐, 文緯·文誠後(父子), 朴敏修, 洪溱

(副正), 金延慶(지례현감), 朴宗男, 李天封[이하 11명 : 상주 초상시], 李見龍, 金仲任, 李籟, 李蘭貴, 張顯道, 李忠民, 李子信, 李命夔, 呂焯, 李文雨

- ② **조문·조제(吊祭)를 한 사람(40)** : 金允安, 崔暉, 경주 任以賢 등 6명(경주향교·서악서원), 李宜潯(옥산서원 원장) 외 원생 8명[奠物, 祭文], 孫遜, 崔興國, 鄭允偉(장수찰방), 李亨胤(자여찰방), 權宗孝(안동유생)[안동향교·서원 賻物 올림], 鄭四象, 李英立, 金貴精, 金是稅, 鄭好仁, 洪得一(독운어사), 金頊, 鄭守藩, 趙亨道, 全三益, 李長立, 孫盼, 金頰, 金天溍·金料·金櫓(3父子), 朴犴衢, **申悅道**
- ③ **제문을 지어 잔을 드린 사람(50)** : 李濯, 宋光宅, 李時幹, 孫宇男(임고 유생), 鄭四勿, 全三省[全省三], 鄭克後, 李黼[李時黼], 全有性, 孫沆 등 7명, 徐思述(대구향교 유생), 孫處約(서원 유생) 등 10여 명, 李潤雨, 金允安, 崔暉, 李心弘 형제[李心一], 李文雨, 金大澤, 張顯光, 金宗孝(오산서원 원장), 金大振(김천찰방), 蔡夢硯. 鄕校·書院 합동[선생 생신], 研經書院 別奠[선생 생신], 曹輻·鄭璧·鄭好仁·孫沆(영천유생) 등 6명[이하 10명 소상시], 楊景洙(대구유생) 등 2명, 朴棗·金潤[[공주유생][公州 書院 賻物올림]
- ④ **부의(賻儀)나 전물(奠物) 올린 사람(18)** : 李喜英(임고 유사), 兪亨吉(영산향교 유생, 생원), 洪文海(군위향교 유생), 姜胤先(용궁유생, 생원), 鄭旻(趙靖 사위), 申景珍(密陽府伯), 鄭經世, 趙靖(청도군수), 李竣(풍기군수), 金嘻(영덕향교 유생), 李道昌, 성주 醫局·鄕校·鄕所의 路奠[奉樞 때], 成辦奎·金行可의路奠[奉樞 때], 金憲(도사)[장례 후], 李潤雨[상주빈소]
- ⑤ **대신 사람을 보내어 조문, 부의, 위장(慰狀)을 전한 사람(4)** : 李德胤, 蔡宗吉, 李瑩, 金頰의 父親 [金昌一]
- ⑥ **상가에 다녀간 사람(10)** : 李成吉[叔氏], 李惟遠, 李起雨, 都聖俞, 都汝俞, 蔡楸, 張乃範, 李命龍, 金鍊, 張乃亮[산소 정비] *①~④ 가운데 한 곳이라도 선택하여 예를 표했을 것으로 추정됨

護喪錄에 기록된 인명은 115명으로 확인되는데 수차례 다녀간 사람이 많았고, 단체 인원까지 포함하여 166명(중복 포함)이 예를 표하였다. 이는 호상록에 표기된 것을 중심으로 편의상 6개로 나누어 파악한 것이므로 경중을 따지기 어렵다. 호상록에는 장례식 직전에 祭文을 지어서 잔

드린 향교·서원 및 제생 80여 명의 명단이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총 246명 정도가 한강의 영전에 직접 예를 표한 것이다.

문상객 수는 ㉠초상 때인 1620년 1월 6일(86명), 1월 7일(170여 명), 1월 8일(230여 명) ㉡발인하고 운구하였던 2월 30일(200여 명), 3월 1일(200여 명) ㉢장례 기간인 3월 28일(50여 명), 3월 29일(190명), 4월 1일(380여 명) ㉣소상 때인 1621년 1월 5일(120여 명) 등 전체 1,626명으로 확인되어 매우 성대하였다.

<사빈호상록>의 정고본 문체는 제삼자적 관점에서 작성하고 있다. 한강을 표기하는 ‘先生’字와 선생을 상징하는 ‘柩’字, ‘靈’字 위에는 1자의 空格을 두어 존경을 표하였고, 장현광의 경우는 호를 붙여 ‘張旅軒’이라 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품와 같은 자칭대명사를 사용하거나 인명에서 叔氏, 從叔 같은 친족 관계를 표기하고 있어서 정고본 편성 당시 일부 산개한 것이라고 본다.

상례 기간 중 상주가 22세로 죽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석담은 606자나 되는 장문의 제문을 지었다. 문장 첫머리에 상주의 선친과의 막역한 교분이 있었다는 것을 적시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형용한 후 감회를 적었다.

斯文이 불행하여 태산이 갑자기 무너지니, 그대가 약관의 나이에 다시 承重의 상복을 입었네. 효성스러움이 무궁하여 슬퍼함이 매우 지나쳐 衰麻의 상복을 몸에서 벗지 않았고 슬피 우는 소리가 입에서 끊이지 않았으며,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상하여 앙상하게 뼈만 남아 보는 사람들이 불안해하였네. 장례 치름에 미쳐서 사방에서 와서 보았는데, 슬픈 안색으로 애통히 곡을 하니 조문하는 이들이 크게 심복하였으나 원기는 이미 매우 손상되었네. 서로 아끼는 친구들이 생명을 잃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직접 말하고 편지로 알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오히려 변하지 않고 수개월을 겨우 버티다가 끝내 치료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네. 이것은 비록 그대의 효성이 천성에서나와 훼손에 이르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나, 그대가 끝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실로 우리들이 보호하지 못한 죄이기 때문이니,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⁷³⁾

73) 李潤雨, 앞의 『石潭集』 권4, 「祭鄭景緝文」, “斯文不幸, 泰山忽頽, 君弱冠之年, 再持

이 글에 이어서 석담은 한강선생 초상이 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几筵에는 하루아침에 주인이 없어져 끝내 어린 아우로 하여금 대신 상을 맡게 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인정과 애통함이 진솔하게 잘 베어나는 명문장이다.

석담은 한강선생이 돌아가신 해 12월 23일 저물녘에 집으로 가다가 泗水를 지나면서 시 1수를 읊는다.

門外無人立雪中	문밖에는 눈 속에 서 있는 사람 없고,
詩書零落草堂空	시서는 흩어지고 초당마저 텅 비었네.
當時函丈承顏地	당시 선생을 뵈던 곳,
惟見茅簷捲夕風	오직 보이는 것은 초가 처마가 석양 바람에 날리는 것 뿐. ⁷⁴⁾

선달 한겨울의 차가움과 허공의 적막감이 한데 어울림으로 인해, 석담 자신의 마음속은 더욱 허전함과 선생에 대한 그리움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는 3년 동안 心喪의 예를 행하였다. 이는 석담이 한강선생 별세 시 보낸 輓詞에서 “의리로는 스승과 제자로서의 분수가 정해졌으나 인정으로는 부자의 친함과 같다.(義定師生分 情同父子親)”⁷⁵⁾라고 한 사실에서 숙연함을 느끼게 한다.

IV. 마무리 글

석담 이윤우는 21세 때 한강 정구에게 학문하는 방법을 배운 후로 스

承重之服, 孝思無窮, 哀毀踰節, 衰麻之服, 不脫於身, 哭泣之聲, 不絕於口, 漸毀骨立, 見者危之, 及至塋, 四方來觀之, 顏色之感, 哭泣之哀, 吊者大悅, 而元氣則已大敗, 親朋相愛之人, 無不以減性爲戒, 面言書告, 非至一再, 而猶不變, 奄奄數月, 終至不救, 是雖君之誠孝出於天性, 不自覺其致毀, 而使君終於此者, 實由於吾儕不能保護之罪也, 其尚何爲哉.”

74) 李潤雨, 앞의 『石潭先生文集』(정고본), 「사빈호상록」, 1620년 12월 23일 조.

75) 李潤雨, 앞의 『石潭集』, 권1, 「寒岡先生輓」

승을 평생 존경하였다. 사제 간의 정이 끈끈했음은 몇 편의 왕래 편지, 「봉산욕행록」, 「사빈호상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스승 사후에 이윤우는 한강 정구에 대하여 贈職[벼슬 추증]·贈諡[시호 추시]의 계청, 신도 비명 청탁, 川谷書院과 檜淵書院의 제향 노력 등 주목할 만한 추승 사업을 실현하였고, 또 스승의 언행록 편찬, 遺文 정리 등 제자로서 책무를 다하였다.

한강학과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이윤우가 담양부사 재임 당시 스승의 저술 『오선생에설』과 『오복연혁도』를 간행한 것은, 평소 스승의 간곡한 소망에 따른 실천이었다. 예학을 중시했던 조선 시대에서 이 책은 남인·노론·소론 모두가 주목하여 내용을 引用하거나 책을 重刊하였으니, 이윤우가 스승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강학과 기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빈서재식기안』은 이윤우가 주도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1617.2.16.부터 스승을 모시고 강학하여 7.20.까지 유지되었는데, 강학 문인은 85명이고, 서재에 머물며 朝夕으로 식사할 때는 날짜별로 서명[手決]을 하였다. 서재의 문인들이 봉산[동래]에 목욕 행차를 계획하여 그해 7월 20일 실행하였고, 85명 중 44명이 동참하거나 환송하였다.

「봉산욕행록」은 이윤우가 지은 것으로, 1617.7.20.~9.5.까지의 일기이다. 서술방식은 我, 余, 吾 등과 같은 자칭대명사가 없는 제3자적 관점에서 기록하였다. 현재 알려진 책으로는 『석담집』(목판본)에 실린 「봉산욕행록」, 1912년 鄭在夔가 간행한 『한강선생봉산욕행록』(회연본), 광산이씨가 1908년에 간행한 「한강선생봉산욕행시일기」(광산이씨본) 등 3종인데, 이번에 새로 『석담집』(정고본)을 발견하였다. 定稿本 중심으로 비교해 보니, 「봉산욕행록」은 3종 모두 『석담집』의 내용을 저본 삼아서 편성하였다. 『석담집』 목판본은 정고본에서 29.7%를 刪削한 것이었다.

회연본은 내용이 풍부한 편이었다. 『석담집』 정고본과 비교해 보니, 내용의 추가와 刪削이 많았다. 추가된 내용은 詩文, 인명, 후대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 등인데, 대부분 『석담집』 初稿本에 기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단하였다. 그러나 초고본이 傳存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광산이씨본에서는 인명의 增損과 일부 오탈자가 있었다. 이번에 이본을 비교한 것 만으로서도 「봉산옥행록」을 定本化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한다.

「사빈호상록」은 『석담집』에 실려 있는데 1620년 1월 5일 한강 정구가 별세하자 제자 이윤우가 護喪을 맡아서 상례를 처리한 것으로, 小祥 때까지의 일기이다. 현재 널리 전하는 『석담집』(목판본)을 이번에 발견된 『석담집』(정고본)과 비교하니, 내용 23.7%가 산삭된 것이었다. 기록된 인명은 115명이었고, 단체 인원까지 포함하면 166명(중복 포함)이며, 전체 문상객의 인원수는 1,626명으로 확인되었다. 정고본은 간결한 문체로 작성되었는데, 한강 정구를 표기하는 ‘先生’ 字와 선생을 상징하는 ‘柩’ 字, ‘靈’ 字의 위에는 1자 空格을 두어 존경을 표하고 있다.

석담 이윤우는 어떤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였다. 「봉산옥행록」에 통도사 同話錄 16명, 포석정 懷古錄 43명, 이수 同話錄 44명, 식송정 會錄 31명, 경산 追來者名錄 47명 등 181명이 있고, 「사빈호상록」 115명, 『사빈서재식기안』 85명 등 포함 총 381명(중복자 포함)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명록은 한강학파의 기반[토대] 자료가 될 것이며, 한강학단의 결속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23년 01월 0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02월 27일부터 03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03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光山李氏 編, 「寒岡先生蓬山浴行時日記」, 목활자본(『光山李氏淵源錄』, 廣陵開刊, 190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한고초57-가883), 1책(권3).
- 金中淸, 『苟全集』, 목판본(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 薛瑄, 『薛文淸公讀書錄』, 목판본(성주, 川谷書院, 1574), 1책.
- 薛瑄, 『薛文淸公讀書錄要語』, 목판본(安東大都護府, 1607), 1책.
- 成大璣, 『眉山逸稿』, 석판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고811.081성대진口), 1책.
- 宋時烈, 『宋子大全』, 목판본(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 李潤雨, 『石潭先生文集』, 定稿本,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古3428-631), 5책.
- 李潤雨, 『石潭集』, 목판본(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 李滉 編, 『朱子書節要』, 목판본(친곡서원, 1575), 20권 10책.
- 李滉, 『退溪集』, 목판본(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 李滉, 『退溪先生喪祭禮說』,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古5213-149), 2책.
- 張顯光, 『旅軒集』, 목판본(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 鄭述 編, 『西原世稿』, 목판본(1607),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고 811.082정구사), 8권 2책.
- 鄭述, 『五服沿革圖』, 목판본(담양부, 1629), 1책.
- 鄭述, 『五先生禮說分類』, 목판본(담양부, 1629), 20권 7책.
- 鄭述 編, 『太極問辨』, 목판본(회연서원, 166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한고초03-13), 1책.
- 鄭述 編, 『退溪先生禮說問答』, 필사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이181.153정구사), 1책.
- 鄭述 編, 『夏山勸懲案』, 필사본[영인], 창녕문화원, 2005.
- 鄭述, 『寒岡集』, 목판본(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및 고전번역서).
- 鄭述 編, 『玄武發書正宗』, 필사본(1607년 鄭述 序文),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D133.3-정17㉸), 3권 3책.
- 鄭在夔 編, 『寒岡先生蓬山浴行錄』, 목활자본(성주, 회연서당, 1912), 1책.
- 崔性郁 편, 『檜淵及門諸賢錄』, 석판본(성주, 1974), 4권 2책.

- 이세동 역, 『봉산욕행록』, 성주문화원, 2016.
- 장인진, 『4대한림 한강학의 기반, 칠곡 석담 이윤우 종가』, 경북대학교출판부, 2020.
- 정병호 역, 『국역 영봉지』, 성주문화원, 2014.
- 정우락, 『한강학의 생성공간과 한강학파의 성장』, 한강학연구원, 2022.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한국의 철학』 13, 1985.
- 김기주, 「道東書院과 寒岡學의 전개」, 『한국학논집』 5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4.
- 김학수, 「〈봉산욕행록〉을 통해 본 한강학파의 인적 기반」, 『봉산욕행록』(이세동 역), 성주문화원, 2016.
- 김학수, 「한강 정구와 봉산욕행」, 『한강학과 석담 이윤우』(2022년도 한강학연구원 창립10주년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한강학연구원, 2022.
- 김학수, 「한강 정구의 신도비명의 개정 논의와 그 의미」, 『한강 정구와 회연서원 문화』, 한강학연구원, 2019.
- 도재욱, 「사빈서재의 고찰」, 『한강공원 준공 및 사양정사 복원 고유제』, 한강정구 선생기념사업회, 2018.
- 이태희, 「〈봉산은천욕행일기〉에 나타난 노상직의 동래온천 여행과 그 의미」, 『동양한문학회』 62, 동양한문학회, 2022.
- 장동우, 「한강 『오복연혁도』의 예학사적 위상」, 제4차 한강학연구 기획학술대회 자료집, 한강학연구원, 2015.
- 장인진, 「석담 이윤우와 한강학 기반 조성」, 『한강학과 석담 이윤우』(2022년도 한강학연구원 창립10주년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한강학연구원, 2022.
- 정경주, 「『오선생예설분류』의 편차와 그 의의」, 제4차 한강학연구 기획학술대회 자료집, 한강학연구원, 2015.
- 정우락, 「〈봉산욕행록〉에 대한 문화론적 독해」, 『봉산욕행록』(이세동 역), 성주문화원, 2016.
- 정우락, 「한강 鄭述의 事物認識方法과 世界志向」, 『한강학의 성리학적 재발견』,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역락, 2018.
- 한영미, 「〈蓬山浴行錄〉 研究」,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집, 2012.
- 홍원식, 「조선중기 낙중학과 정구의 한강학」, 『한국학논집』 48, 계명대 한국학연

嶺南學 제84호(2023)

구원, 2012.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조선왕조실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Abstract

Foundational Establishment of Han Gang School by Seokdam Yoonwoo Lee

Chang, In-jin

This article examines the academic basis Seokdam(石潭) Yoonwoo Lee(李潤雨) had of his teacher, Han Gang(寒岡) Gu Jeong(鄭述), which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Han Gang School.

Yoonwoo Lee fulfilled several posthumous honorary projects for his teacher including acts of religious services at Cheongok Confucian Academy(川谷書院) and Hwoeyeon Confucian Academy(檜淵書院), the request for funerary monument, and requests to the king for jungjik(贈職), and jungshi(贈諡). In addition, he fulfilled his duties as disciple, such as publication of his teacher's deeds and organizing Confucian texts.

Regarding the foundation of Han Gang School, Yoonwoo Lee's publications of his teacher's writings during the time of his working as a head of Damyang Province(潭陽府使), "Ohseonsaengyaeseol"(五先生禮說) and "Ohbokyeonhyeokdo"(五服沿革圖), were accomplishments in accordance with Gu Jeong's earnest wishes. Those books were attractive to all of Namin, Noron These books were attractive to all of the Namin, Noron, and Soron confucian scholars in the Joseon Dynasty. Moreover, the contents were actively cited or used to the publication of a new edition. Based on these achievement, Yoonwoo Lee greatly contributed to the enhancement of his teacher's honor.

By reviewing the foundational materials of Han Gang School, it was

shown that “Sabinseojaesikgian”(泗濱書齋食記案) was led to be written by Yoonwoo Lee. In these materials, it described how he pursued studies with his teacher from February 16th and maintained it until July 20th of 1617, with 85 writers who were also pursuing studies, living in the library and signing their name by date when having their morning and evening meals. These writers in the library planned a bath trip to Bongsan(Dongrae) and, on July 20th of that year, 44 of the 85 people participated or were seen off.

“Bongsanyokhengrok”(蓬山浴行錄) was a diary written by Yoonwoo Lee from July 20th to September 5th of 1617. Three books about Han Gang were previously known: “Bongsanyokhengrok,” included in the woodblock printed edition of the “Seok Dam Jip”(石潭集), the Hwoeyeon edition of “Bongsanyokhengrok of Teacher Han Gang” published by Jaegi Jeong(鄭在夔) in 1912, and “Bongsan Bathing Diary of Teacher Han Gang” by the Gwangsan Lee family in 1908. However, a Jeonggo edition of the “Seok Dam Jip” was newly discovered at this time. A comparison based on the Jeonggo edition(定稿本), it is clear that the “Bongsanyokhengrok” was organized as an original copy with the content of the “Seok Dam Jip” across all the three books. 29.7% of unnecessary writing in the woodblock printed edition of the “Seok Dam Jip” was erased(刪削) in the Jeonggo edition.

The content of the Hwoeyeon edition was seemed to be rich. When compared to the Jeonggo edition of the “Seok Dam Jip,” there were many instances of added content or deletions of unnecessary contents. It included content that lines of poetry, descriptions of human life, and those could be viewed negatively from the perspective of future generat and so on; it was concluded that most of them were recorded in the Chogo edition(初稿本) of “Seok Dam Jip.” In addition, there were partial counting errors(增損) of names and typos in the edition of Gwangsan Lee family.

“Sabinhosangrok”(泗濱護喪錄) was published in the context of “Seok Dam jip” and was the diary of disciple Yoonwoo Lee until he became the organizer of the first memorial day ceremony and took charge of the funeral service and rituals upon the death of Han Gang Gu Jeong on January 5th of 1620. Comparing the widely distributed woodblock printed edition of “Seok Dam Jip” with the newly discovered Jeonggo edition of “Seok Dam Jip”, 23.7% of the content was deemed unnecessary and deleted. The counted records of condolers were 115 people, and including group members reached 166 people(included duplicates). The total number of mourners was 1,626.

Yoonwoo Lee made lists of attendees in certain events or meetings. In the “Bongsanyokhengrok,” 181 people were mentioned, including 16 people in the “Tongdosa Donghwarok”(通度寺 同話錄), 43 people in the “Poseokjeong Hwoego Book”(鮑石亭 懷古錄), 44 people in the “Isu Donghwarok”(二水 同話錄), 31 people in the “Shiksongjeong Hwaerok”(植松亭 會錄) and 47 people in the “Gyeongsan Churaejamyungrok”(慶山 追來者名錄). A total of 381 people(included duplicate people) were identified, including 115 people from “Sabinhosangrok” and 85 people from “Sabin seojaesikgian.” This list of names proposed in this research will be the groundwork or foundational materials for studying Han Gang, and could contribute to establish a cohesive social network for a Han Gang studying group.

keywords :

Gu Jeong, Jeonggo edition, Seok Dam Jip, Bongsanyokhengrok, Sabinseojaesikgian, Sabinhosangrok, Ohseonsaengyaeseol, Ohbokyeonhyeokdo, Jaegi Jeong.

